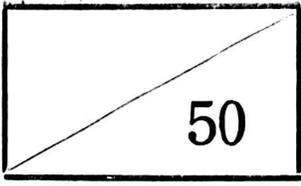


국통 74-3-45



# 東歐共產圈의 形成變遷 및 展望



1974. 11.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機關：全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양            종            의

# 目 次

一. 序 論 .....	3
二. 東欧共產圈의 成立 및 變遷過程 .....	8
1. 成立背景 .....	9
2. 스탈린主義의 形成 .....	23
3. 非스탈린化와 東欧諸國의 動搖 .....	40
4. 東欧의 多樣化 .....	50
三. 東欧共產諸國의 變動展望 .....	59
1.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問題提起 .....	59
2. 「理論構成」과 「힘關係」 .....	61
3. 自主路線, 自由化, 西方接近 .....	65
4. 東欧共產圈의 「漸進的」變化 .....	68

## 一. 序 論

현재 「東歐」란 일반적으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東獨의 소련 衛星 7 個國에 유고슬라비아를 첨가한 8 個國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이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東獨은 本來의 東歐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7 個國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學者에 따라서는 북쪽은 핀란드에서 남쪽은 그리스, 터어키까지의 14 개國을 포함시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여기서는 東歐의 定義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피하고, 이 지역의 특색이라고 생각되는 點을 몇 가지 들고 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체적인 問題意識을 뚜렷이 해보고자 한다.

① 東歐란 西쪽인 독일, 오스트라리아 및 이탈리아, 東쪽인 러시아의 중간에 끼인 「緩衝地帶」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지역이며 북쪽은 발트海, 남쪽은 에게해에 이른다. 이 7 개國의 총면적은 117 만  $km^2$ , 總人口는 약 1억 400 만으로서 두가지 다 유럽 전체의 1/4 정도이며 EEC 6 개國에 비교하면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 인구는 약 3/5에 해당된다. 어느 국가선 인접국가를 정복하여 일대 왕국이 된적이 없으며 도리어 너무나도 강대한 域外 인접국가의 영향하에서 불안정한, 주체성이 없는 小國으로서의 존재를 계속해 왔다.

② 東歐에 現存하는 諸國은 모두 1815년~1918년의 약 100년

간에 탄생되었다. 1815년에는 이 지역에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터어키라는 「東歐」의 概念에 들어 오지 않는 4개국의 領土가 있었을 뿐이었다. 폴란드가 독립국으로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불과 50년전이었다. 제1차대전의 전야인 1914년에는 北쪽에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있고 다뉴브江 이남에서 발칸에 걸쳐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6小국이 북쪽의 여러 大國과 축소된 남쪽의 오트만帝國과의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1차대전의 결과로서 이 지방에 大變革이 있었으나 그것은 이 지방의 北쪽 부분이 小國化되어 「발카나이즈」된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오트만, 로마노프, 합스부르크, 호엔츨레른 등의 4王家의 붕괴, 즉 낡은 王朝가 끝나고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時代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알바니아는 새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리트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을 재획득하고,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유고는 南슬라브諸民族의 統合에 의하여 세르브·크로아트·스로베에느王國으로서 출발하여 후에 國名을 유고슬라비아로 바꾸었다). 그리스는 그 版圖를 擴大하고 불가리아는 축소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는 하나의 帝國國家에서 두개의 民族國家으로 二重君主國成立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고 오트만·터어키는 터어키共和國으로서 再生하게 된 것이다.

③ 東歐諸國은 일반적으로 말해 民族國家의 기초가 없는 곳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이다. 1918년의 東歐를 만든 것은

월슨의 「民族自決主義」인데 이를테면 「一言語一國家」란 原則도, 너무 理想에만 치우쳐 民族國家形成의 現實的 條件이 되지 못하여 그것을 고집한 곳에서는 도리어 나라를 細分하는 結果가 되었다. 원래 西歐는 東歐라는 障壁으로 인하여 몽고, 터어키 등의 外敵侵入을 받지 않고, 내셔널리티를 形成할 수가 있었으나, 東歐는 西歐의 障壁이 되는 事態때문에 도리어 民族國家形成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한말로 東歐라 하더라도 그 내셔널리즘은 南北으로 갈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카르파티아 山脈의 北쪽에는 自然的 境界線이 없고 國境은 政治적인 力學關係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民族의 對立이 항상 國境싸움으로 번지는것이 슬픈 歷史였다. 다른 한편 카르파치아 山脈의 南쪽에는 自然적 境界는 있었으나 이것이 民族的 境界와 일치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지역의 歷史도 역시 비극적이었다. 이를테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국민은 2/3가 체코사이고 1/3이 마자르사이다. 트란실바니아에서는 1/2이 루마니아인, 1/3이 마자르인, 나머지가 독일인이다. 이처럼 지리적으로는 한 單位를 이루는 한지방에 다른 지방의 多數民族이 混入되어 있을뿐 아니라 宗教적으로도 그리스正敎, 로마 가톨릭敎, 프로테스탄트, 回敎가 混在되어 民族主義 以前의 分裂이 깊이 뿌리 박고 있다. 더우기 富와 社會的地位의 配分이란 점에서 보아 어느 나라에서나 최저수준의 생활에 허덕이는 가난한 農民이 그 國民의 대부분을 이루어 兩次大戰期間만 해도 소위 부르조아는 독일인, 유대인 정도였으며,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에 있어서는 그 위에

土着·貴族階級이 있었다. 이 같은 縱的인 社会的 对立과 橫的인 民族的 亀裂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곳에 東歐의 歷史의 特長이 있는 것이다.

④ 이 같은 東歐의 社会的分裂은 뒤집어 말하면 民族的 中産階級의 欠如라고 할 수 있다. 大戦期間에는 工業化와 함께 어느 정도의 부르조아지와 노동자가 불어났으며, 그들은 既存의 유태人·부르조아지와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서서히 그 지위를 구축하여 혹은 방대한 관료계급을 형성하였으나, 그子弟는 不況이란 惡條件도 겹쳐 失職을 하게 되고 건전한 발달은 힘들었다. 한편 노동자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빠져 나가지 못했으며 농촌의 끈임없는 剩餘人口의 压力으로 近代的 労働者로 脱皮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西歐的인 近代民主主義社会는 建設되지 못했으며 그만큼 國家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英雄伝說이 강조되어 과격한 내셔널리즘이 形成된 것이다.

⑤ 第2次大戦後의 東歐의 共產化는 不健全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달을 보여온 東歐社会의 近代的 要素를 나치스 독일의 支配가 철저히 파괴시킨 空白狀態에서 進行되었다. 그 過程에서는 東歐諸國의 共產黨의 영향력이 한두 나라를 제하고는 극히 약했기 때문에 소련軍을 업고 교묘하고 무자비한 戰術이 취해졌다.

1944·5년에서 1948년초까지의 東歐에 共產黨独裁政權이 뒤이어 세워졌으나 그후 이들 政權이 실시한 각가지 政治·社会·文化의 諸政策은 各國의 具體的인 事情을 고려하지 않고 소련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政策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수

많은 모순이 1953년 스탈린前後, 특히 스탈린批判을 계기로 차츰  
顯在化하여 때로는 헝가리 事件과 같이 噴出하게 된 것이다.

⑥ 1956년 2월의 소련共産党 20次大会와 그 뒤를 따르는  
東歐의 動亂에 의해 생긴 社會主義陣營의 分裂狀態에 직면하여 이  
탈리아共産党的 트리아치 書記長은 共產主義世界的 장래를 「多數中  
心主義」라고 定義하였다. 그후 中·蘇對立, 알바니아의 反逆, 루마  
니아의 離反的傾向, 체코의 自由化運裏 등 東歐의 「多樣化」傾向은  
東歐諸國에 깊숙히 浸透하여 소위 「한 바위덩이」가 흐트러지게  
된 것이다. 현재도 이 分極化過程은 進行되고 있다. 이처럼 소  
련을 포함하여 社會主義陣營은 오늘날 큰 岐路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東歐諸國이 소련과 맞서 獨自路線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東歐諸國이 西歐的인 自由諸國家로 脫皮하리라고 생각하  
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二. 東歐共產圈의 成立 및 變遷過程

世界第2次大戰의 終局과 함께 共產主義는 하나의 거대한 國際政治上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스탈린 死亡前까지 유고슬라비아를 예외로 한 共產諸國은 소련을 宗主國으로 한 共產圈을 형성했으며, 개별 국가의 행동의 獨立性을 용납치 않는 一元主義的 支配體制下에서 소련은 政治, 經濟, 軍事 및 外交面에서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東歐共產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의 本質과 내용도 소련과의 縱的인 從屬關係라는 차원에서 분석되어졌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탈린 死後 共產圈의 팽창발전과 함께 一國만을 중심으로 한 指導體制는 붕괴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國家的 발전단계가 相異한 諸國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던바 즉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의 다양성을 예증한 「티토이즘」의 성공 또는 共產陣營 自體內에 있어 多數中心主義를 촉진하고 分裂主義의 출현을 자극함으로써 諸共產黨에 대한 指導權의 自律性의 기회를 제공한 中·蘇間의 論戰과 對立은 共產主義의 多元化制度에로의 行為變遷을 촉진하고 있다.

共產圈의 多極化라는 추세하에서 민족적 또는 改革的인 共產主義體制를 設定 維持하려는 東歐諸國이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의 실천에 있어 一國에 의한 行動統一의 일치를 不願하고, 개개 共產黨의 세력의 強弱에 구애됨이 없이 각기 自律的인 國際發展을 모색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극히 당연

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本稿를 통하여 「對立과 分裂時代」로 집약되고 있는 共產圈의 성격을 大前提로 하여 東歐共產諸國의 행위 變遷過程을 東·西問題의 중요성과 관련시켜 검토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 1. 成立背景

### 가. 東歐共產圈의 成立

共產圈 研究家들의 일반적 견해로서 東歐共產圈의 성립을論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할것은 他律에 의한 被動的인 「圈의 形成」 문제이다. 즉 2次大戰前까지 傳統的인 자기 文化와 歷史에 긍지를 가진 諸國이 戰後處理 過程에서 소련의 單一統治圈內에 흡수되었으므로 「東歐共產圈의 樹立」 그 자체가 소련共產圈의 附屬物로서 「크렘린올로지 (Kremlinology)」라는 前提下에서 언급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소련에 의한 東歐諸國의 被動的인 變遷과정은 戰後 10여년간 크렘린의 經濟的, 政治的 또는 軍事的인 統合措置에 무조건 복종으로 일관되어 왔었다.

우선 經濟的인 지배로서 소련은 東歐諸國에 西歐와의 經濟的 交流를 막기 위하여 강력한 압력을 가해 왔었다. 예컨대 1947년 戰後西歐諸國의 復旧를 위한 「마셜計劃 (Marshall Plan)」의 東歐浸透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련은 東歐諸國을 「몰로토프計劃 (Molotov Plan)」에 가담케 했던 바 이 계획은 첫째, 衛星國들에 의해 소비에트聯邦의 건설을 도우며, 둘째, 東歐諸國을 産業化시키며,

세째, 소련 衛星國間에 經濟的單一化를 期하고, 네째, 소련 東歐間의 貿易去來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同計劃으로 말미암아 東歐諸國은 西歐와의 접근이 金해졌고 다만 소련과 東歐諸國內라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通商去來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연히 소련으로 하여금 販賣 購入으로 인한 利潤의 独占者 위치에 서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물로토프計劃」을 뒷받침 해주고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經濟政策으로서 나타난 소련 東歐相互經濟援助會議인 소위 코메콘 (COMECON)이 1949년 1월에 創設되었지만 이 기구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대립이 激化되자 美國을 위시로 한 西方圈에 대한 冷戰政策에 대비하는 조치로서 취해졌으며, 또한 이것은 東歐諸國을 西方諸國과의 거래로 부터 단절시키고 宗主國인 소련을 중심으로 한 縱的인 經濟關係를 貫철시키려는데 근본 의도가 있다. 물론 코메콘의 目的을 보면 첫째, 社會主義諸國間의 經濟協力과 相互援助, 둘째, 經濟計劃의 調整을 통해 社會主義諸國間의 國際分業態勢 確立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소련 중심의 相互援助 方式을 취한 결과 互惠·平等의 원칙의 不履行으로 加盟國間의 對立發生은 不可避한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소련·東歐諸國間에 經濟協助機構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의 소련의 東歐衛星國에 대한 經濟支配는 各樣各색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바 그것은 가령 貿易協定, 차관, 投資, 合資會社制度, 學科의 割當, 銀行에 대한 管理 또는 衛

星国の 産業施設地区에 소련 시민을 임명 파견하는 것 등이다.

좀더 記述하면 소련은 東歐諸国과 合資協定에 50%의 割當 比率로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東歐諸国의 經濟生活에 까지 침투하고 있었으며, 또한 合資会社라는 명목하에 東歐諸国을 지배하고 있는 바, 루마니아의 航空, 河川, 海上 기타 운수 등을 사실상 統制 관리한 바 있고 또한 헝가리에서의 合作会社는 航空, 河川, 鐵道, 油類 및 化学産業을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련의 東歐支配方法은 단순히 經濟的인 면에서만 볼 수 없으며 政治·軍事的인 면에서도 그 手法은 數多하다.

政治的인 支配方法은 소련式 共產主義의 敎理에 대한 강력한 宣傳活動을 들 수 있겠다. 共產主義敎理를 가르쳐 주는 것 외에도 露語, 소련史, 소련文學 등은 東歐衛星国에 있는 學校나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배우는 중요한 敎科過程이다. 이러한 소련식 敎理宣傳의 강화성은 東歐諸国으로 하여금 소련 文化만을 숭배하게 하여 東歐諸国을 傳統的이고 歷史的인 西歐와의 접촉을 근절시키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크렘린에 의한 政治的 支配方法은 또한 行政面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었다. 즉 東歐諸国의 政府를 움직이는 要人은 주로 소련 사람인 바 이들은 소련 共產黨 中央委員會에 의해서 選定 파견된 者들로서 고문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行政府의 一般幹部, 새로 조직되는 軍隊, 一般警察 또는 秘密警察을 조직하며, 그리고 農業의 모국화를 가르쳐 주고 소련政府를 위하여 合作会社를 運營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東歐諸國으로 하여금 소련의 고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法的으로 認定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50년 7월 불가리아政府는 소련 고문관들의 支配的인 위치를 허용한다는 法律을 통과시켰다. 그밖의 諸國도 동일한 方法이 강요된 것은 明若觀火하다. 특히 조그마한 알바니아만 하더라도 50년대 말까지 약 5천명 이상의 소련 고문관들이 실질적으로 알바니아 內政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극히 주목된다.

한편 바르샤바 條約이 前提가 되어 소련은 東歐諸國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들 軍隊는 主要基地에 배속되고 실질적인 命令者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우기 東歐諸國에서 청년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소련 卓보로프 軍官學校에 파견하여 소련식 軍事訓練을 체득케 하여 宗主國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東歐諸國의 100만 이상의 군대를 소위 國際軍이라는 명칭하에 동일한 言語(露語)를 사용함은 물론 소련식 軍事訓練을 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戰後 10여년간에 소련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또는 軍事的으로 東歐諸國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스탈린의 單一支配體制下에 놓았다.

요컨대 衛星國化의 政治過程을 밟아 온 東歐諸國은 스탈린主義의 強壓的인 運轉 속에서 內政에 대한 自律性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였으며 다만 스탈린 路線에 追從하는 受動的인 위치에서 소련의 代辯者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한편 衛星國化의 經濟的過程을 벗어나지 못한 東歐諸國은 소련經

濟中心主義라는 大原則下에 각 國의 단독적인 經濟活動은 금지 되었  
고 형식상 瓦惠·平等의 相互援助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을  
위주로 한 經濟圈 속에서 소련 經濟從屬化의 구실 밖에 할 수 없었  
다.

또한 衛星國化의 軍事的 過程은 東歐諸國으로 하여금 독자적 自體  
防衛의 필요성 보다는 소련軍隊의 명령에 복종하여 철두철미 소련식  
軍事活動에 종속되었던 바 불필요한 軍事費의 지출은 물론, 人的動員  
으로서 自國內의 産業發展에 지대한 損害를 초래케 했다.

따라서 戰後 10년간의 東歐 共產圈의 成立過程은 他律에 의한 예  
속관계로 지속되어 온 점으로 보아 自律에 의한 독자적인 「圈」의  
형성이라는 것은 고려키 힘들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死亡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련의 모노리스  
(Monolith)적 지배 體制의 동요는 中·蘇분쟁이 심각해 짐에 따  
라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것은 또한 「自律적인 東歐 共產圈」  
의 인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해 주는 一大動機가 되고 있다.

#### 나. 自律的 行爲의 變遷過程

소련의 單一支配體制의 動搖와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東歐諸國  
의 自律的 또는 半自律적인 행동가능성의 시사는 1956년 第20次  
소련 共產黨大會에서의 「修正主義」路線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후르시  
초프의 秘密演說이 하나의 동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즉 20차  
黨大會를 계기로 소련은 객관적으로나 社會主義의 大戰換期를 모색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1956년을 계기로 나타난 사회主義 自體內的 표면적인  
알력관계는 사회主義體制에 새로운 諸關係를 마련했으며 또한 中共  
을 위시한 일부 사회主義國家를 제외하고는 資本主義諸國에 대한  
從來의 태도에 변모를 초래케 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후르시초프의 20次 共産黨大會의 公開會議에서 행한 「現  
國際情勢의 基本問題」에 관한 報告에서 그가 분석하고 전망한 오  
늘의 세계의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①社會主義陣營과 資本主義陣  
營의 共存, ②戰爭防止, ③平和的인 社會主義移行을 중심으로 한  
平和共存理論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傳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원리에 의한 것보다 現 國際情  
勢의 급격한 변화를 빙자한 現在的 테마를 論議하게 되는데 있어서  
시대적 성격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社會主義的 世界體制  
의 成立과 발전에 世界史의 進행에 따르는 規定的 要因이 내포되  
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이해된다.

이것은 또한 마르크스主義의 「創造的發展」이라는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路線을 合理化시키려는데 의도가 있다. 이러한 修正主義路  
線에 대한 波及은 共産圈 패턴 分析을 위한 새롭고도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케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經濟, 政治, 軍事面에 걸쳐 衛星國化의 과정  
을 밟아온 東歐共産圈의 연구에 새로운 轉機가 되고 있음은 再論  
의 여지가 없다.

말하자면 소련의 修正主義는 東歐諸國으로 하여금 一元主義的인  
支配體制의 테두리를 벗어나 각자 독자적인 路線을 선택하려는 自

由化의 경향을 촉진시키고 있다. 기실 東歐諸國의 소련식 修正主義에 대한 영향은 시즘(Schism)의 경향으로 발전되었던 바 이것은 共產圈의 多極化라는 大前提下에 東歐諸國으로 하여금 점차 宗主國에 대한 태도에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한 바 他律에 의한 행동의 강요를 否定 내지는 制限하려는 東歐諸國의 時代適應을 위한 불가피성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共產圈의 多極化추세를 감안해 볼 때 東歐諸國의 다양한 움직임 속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東歐諸國은 독자적인 革命路線 즉 자위적인 國家利益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지기 소련의 修正主義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들 諸國은 自國의 國家利益이라는 중요한 목적달성을 經濟改革政策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소련中心主義의 經濟關係에서 벗어나려는 東歐諸國이 新經濟制度下에 管理와 計劃化의 改善措置를 시두르고 있음이다.

구체적으로 1966년 4월 23일 티토와 차우셰스쿠간의 共同 Komunism은 유고와 루마니아 간의 共同的인 태도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蘇·中共의 指導權을 거부하고 獨自性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同聲明書에서는 兩國 共產黨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인 適用을 위해 각 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기의 政治路線과 行動方式을 獨自的으로 결정할 權利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는 바

同 커뮤니케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 여러 갈래의 社會主義 建設이 가능하다는 작금의 소위 民族的 共產主義를 再確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共產諸國家로 하여금 모스크바가 세운 一方的인 國際的 目標을 따르기 보다는 우선 自己國家의 目標과 이익을 강조하고 國濟共產主義運動의 이익과 優先順位를 우선 國家적인 局地的 問題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인 바, 이는 즉 브르제진스키 교수의 표현 그대로 共產圈 내부에서의 國內主義 (Domesticism) 優先 현실임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그러한 獨自路線 아래 經濟自由化를 피해 온 유고는 1966년 3월 中共政府의 經濟集中統制 및 計劃排除를 비롯 企業의 獨立과 자유를 골자로 한 17項目的 新經濟自由化計劃을 유고 共產主義同盟 中央委員會 이름으로 채택했다. 유고의 이러한 經濟政策은 東歐諸國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그중 루마니아는 유고에 이어 1961년 소련 중심의 코메콘에 대한 協力을 거부하고 1965년 초 美·英 등 西方諸國으로 부터 工業施設 도입 등을 포함하는 新工業化 5個年計劃 (1966 ~ 1970)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自由化의 추세는 여타 東歐諸國에도 파급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가령 1964년을 전후하여서 東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諸國도 新經濟制度를 채택하고 管理와 計劃化의 改善을 강구하고 있는 바 이들은 주로 品質의 향상, 스톡 이용의 향상 및 生産構造와 需要構造의 不一致의 調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들 諸國은 制限된 코메콘內的 不均等的인 經濟協力關係를

비판하면서 각국마다 각종의 專門化計劃의 이점을 評價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의 研究와 協力推進을 위한 制度的, 政策的 措置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거의 금지되다시피 된 東西貿易政策이 表面化段階에 들어서고 있으며 西歐先進工業國의 技術 도입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6.0년을 계기로 社會主義 諸國間의 圈內貿易의 比重이 저하하고, 반면 東西貿易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가령 東歐諸國이 西歐諸國으로 부터의 輸入 경향을 보면 62년에 전년보다 6.1% 증가를 보였고 그 이듬해인 63년에는 8.2%가 증가되었고, 64년에는 훨씬 더 늘어 1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輸出面을 보면 64년에는 9.5%의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東西間의 貿易政策의 發展樣相은 최근에 접어들면서 각양 각색으로 그 면모를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東歐諸國은 西方國家와의 通商條約은 물론 貿易支払協定 또는 政府베이스의 貿易委員會를 설치하는 등 相互交流는 비단 技術提携 뿐만 아니라 人的交流에 까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東歐諸國의 東西接近策은 소련의 衛星國의 종속 關係에 있었다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둘째로, 政治・經濟的인 면에서의 東歐共產圈內의 自由化 경향은 또한 軍事的 部門에 까지 연결되고 있는 감을 갖게 한다. 이것은 즉 經濟發展을 優先主義로 택하고 있는 것이 東歐諸國이므로 軍事力의 動員關係는 2次的인 重要성을 갖는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예컨대 1966년 5월 7일, 루마니아 共産党大会에서 共産党首 차우세스쿠는 ①軍事同盟體, 軍事「블록」의 존재는 國民의 國家主權과 국가간의 正常關係와 兩立할 수 없는 時代錯誤的인 것이며, ②軍事「블록」형성에 따르는 他國家의 軍事地域 및 兵力駐屯은 諸國民間의 협력에 장애가 되며, ③내셔널리즘이 과거의 유물이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즉 國家란 資本主義의 개념이지만 社會主義는 이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④세계의 90개의 共産党은 하나의 중심체로부터 지도될 수는 없다. 共産主義 發展過程에서는 各黨의 見解差가 존중되어야 한다. ⑤바르샤바同盟에서의 소련軍의 주둔비는 소련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同盟軍司令官이 소련인으로 고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同盟國 軍人간에 순번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同盟宣言이 있은지 2개월 후에 부쿠레슈티에서 바르샤바條約 7개국 頂上會談이 열렸다. 同盟會議에서의 共同聲明의 요지도 차우세스쿠 黨首의 宣言內容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軍盟의 過小評價와 軍事的 緊張을 완화하여 平和共存을 바탕으로 한 歐洲諸國의 安全保障을 위한 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이 또한 현황이라 하겠다.

특히 68년 8월 21일 소련軍의 체코強占은 東歐諸國의 自由化運動을 武力으로 저지한 一大事件이 있었던 바 이를 契期로 일시적으로 위축된 東歐諸國中에서도 유고, 루마니아 등 몇몇 國家들은 소련의 체코에 대한 행위는 동국에 대한 內政干涉이며 소련의 태도는 社會主義의 原則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소련의 체코介入에

대한 부당성에 항의하고 있다.

유고나 루마니아와는 달리 여타 東歐諸國은 西歐, 특히 독일을 위협적인 存在로 간주하고 소련에 코미트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비록 현실점에서 부분적인 東歐諸國이 소련과의 軍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소련·東歐關係의 利害關係 일치는 어렵겠고 오히려 크렘린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東歐의 主體革命은 東·西의 軍事「블록」對立體制를 거부하고 東西世界의 화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짙다 하겠다.

세째, 東歐共產圈의 自律化 과정은 비단 經濟, 政治, 심지어는 軍事的인 次元에서 검토되어 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특히 外交的인 면에서도 그 비중이 크다.

東歐諸國은 自由化的의 물결과 함께 對外關係의 改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기한 바 東西接近을 위한 첫 段階로서의 通商關係 설정은 사실상 단순한 交易의 증진에만 眞意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國交正常化에로의 지향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구체적으로 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루마니아를 선두로 유고가 다년간의 敵國이었던 西獨과 外交關係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우연한 현상은 아니다.

68년 1월 西獨·유고 兩國共同聲明은 兩國政府는 外交關係 재개가 兩國相互關係의 촉진 강화에 있음을 확신한다. 양국 정부는 또한 西獨·유고의 금후의 결정이 歐洲諸國間의 평화적 協力關係 강화의 요청에 적응하고 歐洲에 있어서 緊張완화의 진전에 적극적

인 공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相互國家間의 관계를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후의 東西歐諸國家間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65년 11월 소련을 공식으로 방문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黨首는 各黨 各國의 獨立·自主에 관한 주장을 관철했으며 특히 66년 5월 당 창립 45주년 記念祭에 출석한 그는 “①루마니아는 사회주의諸國과의 협력을 外交의 기초로 하지만 國際共產主義運動을 하나의 센터 (Centre) 에서 지휘함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②루마니아는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諸國과도 신뢰와 協力을 강화하고 있으며, 國際協力上 軍事「블록」의 존재는 커다란 장애이며 그의 폐지를 요구한다. 이것은 國際情勢의 완화, 平和維持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라고 루마니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上記한 바 루마니아의 對外關係는 특히 西歐諸國과의 平和共存에 대한 해석이 소련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며 또한 非西歐的인 태도가 소련에 비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루마니아의 自主外交란 自體「블록」내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다면적인 활동을 통해 主體性을 확립해 가면서 국가 이익을 쫓아 東西外交를 신축성 있게 전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유고나 루마니아의 對西方接近을 위한 外交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금후 여타 東歐諸國에게 政策目的選定에의 다양성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世界共產主義運動과 東歐共產諸國과의 관련성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금의 世界共產主義는 서서히 3개의 分派作用으로 그의 패턴을 달리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主義의 修正理論을 긍지하고 있는 소련은 流動的인 國際情勢의 현실성에 입각하여 거대한 經濟力과 軍事力을 배경으로 美國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서 맞서고 있는 것이 暴力革命을 중심으로 民族解放戰爭을 주장하는 中共이다. 이러한 中·蘇 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独自の인 歷史의 過程을 밟으려는 東歐共產圈은 새로운 패턴으로는 中·蘇紛爭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經濟的으로는 東西間의 접근을 시도하는 새로운 勢力權으로 등장되고 있다.

그실 스탈린 시대의 Monolith 支配體制下에 있어서는 世界共產主義란 비록 그것이 各國의 利害關係의 不一致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소련의 強制性에 의하여 하나의 지붕 밑에 통일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共產圈内部의 分極化는 世界共產主義運動을 統一路線으로 모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다. 따라서 改革的이며 民族的인 共產國家의 建設을 지도하고 있는 東歐共產諸國으로서는 國內主義 優先理論 및 그 실천과 거리가 먼 世界共產主義運動에의 자발적 내지는 他意에 의한 參與過程이란 想定되기 어렵겠다. 오히려 東歐諸國은 共產圈의 分極化에 편승하여 独自の인 社會主義 建設의 길을 모색하리라고 봄이 타당하겠다.

共產圈内部의 分極化와 自由化의 물결속에 對立과 分裂時代라는 관점에서 東歐共產圈의 成立過程과 그 발전은 다양하다.

소련에 의한 他律的인 統合에서 東歐諸國의 行為變遷은 다만 크렘린올로지의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인 「圈」의 형성에 머물렀고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單一支配體制下에서 독자적인 體制의 設定이란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는 물론 금후 소련제국은 不統合과 不調和로 얼킨 사건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토인비의 발언과 같이 東歐諸國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자기의 패턴 형성의 段階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소련식 모델이나 혹은 中共式 모델도 아닌 東歐諸國 各자의 独自の인 모델로서의 自由化에로의 지향이다.

이것은 民族的 共產主義國家라는 견지에서 자기의 國家利益 추구를 優先視하려는 경향이며 또한 그것은 자기의 革命狀況 變質은 자기의 歷史過程을 밝는다는 입장에서 해석되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東歐共產圈의 금후의 방향은 예측을 불허하나 현 상황을 감안해서 볼 때 하나의 뚜렷한 사실은 시대 감각적으로 뒤떨어진 固定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와는 다른 創造的인 적용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社會主義 建設이 선행되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目的 수행을 위해 東歐諸國은 우선 외적인 것 보다는 내적인 면에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다. 換言하면 그들은 세계적인 것 보다는 國家的인 것에, 또한 理念的인 면에서의 共產主義 教理를 무조건 선전하는 것 보다는 自國의 經濟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게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東歐諸國의 向後政策은 東西間의 平和共存이 전제된 보다 폭넓고 신속성 있는 수행이 想定되어지는 바, 특히 이들 諸國은

각자의 보다 나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國家利益的 입장에서 종래의 제한된 선을 넘어 西歐諸國과의 經濟的 交流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經濟的인 後進性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점차로 증가되어 있다고 본다.

## 2. 스탈린主義의 形成

### 가. 스탈린主義의 社會主義 國家關係

1948년 前後에 있어서의 共産黨 獨裁의 확립과 함께 東歐 各國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는 劃一的이 되었으며 소련의 그것들과 가까운 것으로 되어갔다. 지금까지 말해온 그것들의 制度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4개가 된다.

① 共産黨의 優位性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겨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② 顯在的인 敵은 물론 潛在的인 敵을 폭로하기 위해 계급 투쟁을 강화한다.

③ 大規模의 工業化를 서두른다.

④ 工業化와 社會主義 建設에 不可欠한 농업의 社會주의化, 특히 富農의 저항을 무찌르기 위해 농촌에까지 계급 투쟁을 파급시킨다.

그리하여 이 패턴은 소련에서의 實驗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스탈린이 1930년대에 소련에서 실시한 政治, 經濟路線은 절대로 옳바르며 이것이 소련을 救했다는 스탈린의 굳은 신념이 投射되고 있다. 만년에 날이 갈수록 의심이 많아진 獨裁者 스탈린은 소련의 經驗을 그냥 그대로 東歐에 적용하면 分解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다양성의 根源이 제거되어 소련과 東歐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한 물질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길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로서 여러 조건이 劃一的인 것으로 되며 행동과 利害는 一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東歐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革命的 進進과 함께 탄생된 公同의 물질적 기반 위에 스탈린主義의 「社會主義 國家關係」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제도로서의 스탈린主義는 본질적으로 政治 制度라고도 해야 마땅하였다. 즉 소비에트 블록의 건설은 소련의 최생에서 이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련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政策이 취해지는 한 블록 내에 利害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곤란은 소련이 강화됨으로써 報償된다. 왜냐하면 強해진 소련이 東歐 諸國을 강화하고 이들 나라들이 이번에는 自國의 약한 부분을 補強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소련을 해치는 것은 社會主義를 해치는 것이며 소련을 도우는 것은 社會主義를 도우는 것으로서 소련을 강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만이 소비에트 블록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위와 같이 政治的 요인과 소련의 利益先을 基本으로 하여 성립한 국가 관계의 制度로서의 스탈린主義는 공식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다.

먼저 東歐諸國의 相互關係와 對蘇關係는 공식적인 것으로서는 友好, 協力, 상호 원조, 문화 협력 등의 협정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일련의 2國間 협정이었다. 條約은 모두 2國間 條約이며 東歐諸

國 서로의 結付가 그 개개의 나라와 소련과의 結付보다 긴밀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이들 조약은 어느 것이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이들 조약은 軍事同盟條約이며 둘째로 평화에의 노력, 특히 독일 再軍備의 反對, 세째로 主權의 상호 존중, 內政不干涉, 互惠 平等의 강조에 의한 當事國 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네째로 경제 협력의 촉진, 다섯째로 이것은 東歐 諸國 상호간의 조약에 한정되었으나 文化協力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항목은 둘째번의 對獨問題였다. 독일을 敵으로 하는 防衛條約은 대부분의 東歐人民이 독일 占領에 대해 아직도 生々한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봉한 것으로서 그 때문에 이들 조약은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支持를 받았다. 특히 오데르·나이세國境을 公式으로 승인한 소련 폴란드條約은 폴란드의 東部地方을 폴란드 공산당이 소련에게 割讓해 준데에서 생긴 불평을 相殺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약은 새 社會主義 國家關係를 수립한 것, 즉 社會主義諸國間的 형식적 평등을 국제적으로 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블록이 스탈린 색채를 질게 해감에 따라 공식적인 측면은 전적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코민포름의 지위가 떨어진 것에 특히 나타났다. 「코민포름」 9개국 共産黨 情報局 (Communist Information Bureau)은 원래 소련 및 東歐諸國의 공산당 사이를 調整하고 경험의 交流를 꾀하는 것으로서 1947년 9월에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거기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가하

여 결성되었다. 그러나 1950년경이 되자 소련의 경험의 一方的인 강요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 코민포름은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이용되어, 이에 수반하여 소비에트 블록 統一을 위한 非公式的인 측면이 드디어 표면에 뛰어나왔다. 제2차 대전말부터 코민포름 創設에 이르는 기간은 러시아革命 이래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널리 擴大된 시기였다. 그러나 코민포름의 결성은 東西對立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勢力圈의 境界線을 凍結시켜 버렸던 것이다. 당시 코민포름이 對処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4개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共產化, 유고슬라비아 혹은 티토의 문제, 독일 혹은 베를린 문제 그리고 그리이스의 內亂 등 4개이다. 그중 체코슬로바키아의 共產化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모두 失敗로 끝났다.

그런데 소비에트 블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非公式的인 통제 수단은 스탈린 자신이었다. 스탈린은 소비에트 블록의 상징으로서, 東歐 해방의 지도자로서, 소련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建設者로서 이 國家關係에 결정적인 心理的 影響을 미쳤다. 東歐의 共產主義者는 스탈린에 대한 狂信, 사랑, 獻身을 빠뜨려서는 안되었다. 중요한 토론은 언제나 그에게 물어 보아야 했다. 1949년부터 1953년에 걸친 주요한 決定은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그 대부분이 스탈린의 직접 명령에 의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 相對方이 自發的으로 스탈린의 희망대로 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해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당시의 東歐 指導者는 스탈린主義를 헌신적으로 실천했으며 스탈린 개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뿐이었다.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 東獨의 울부리히트, 헝가리의 라코시, 폴란드의 비에루우트와 벨만 등은 코민테른 시대부터 그의 직계자들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발트와 루마니아의 데지는 自國에 있어서의 숙청으로 스탈린主義的 方法을 화려하게 적용하여 頭角을 나타낸 黨員이었다.

정치적 통제의 제 2의 비공식적인 수단은 소련과 관계국과의 지도자 사이의 協議이다. 1952년 10월의 소련 共産黨 第19次大會 때를 제외하고는 東歐諸國의 多數 首腦會議가 열린 적은 없었다. 스탈린과 회담하는 것은 반드시 一黨만의 지도자였으며 그 때문에 그 代表에 대해 다른 黨은 찬성하고 있다든지 제안을 열광적으로 支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할수가 있었다. 代表團으로서는 어떠한 제안에도 즉석에서 熱狂的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지명되어 불린 사람에게는 소련 방문은 스탈린과의 個人的 유대를 갖추고 자기의 개인적 지위를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또한 自黨內의 權力鬭爭에 있어 다른 지도자보다 유리하게 되었다. ( 1948년의 체코의 고트발트의 스탈린 訪問은 그 현저한 例 )

統制의 제 3의 지레는 소련大使였다. 소련大使의 駐在는 그것만으로 통제의 중요한 지레가 되었다.大使와 친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스탈린主義時代에 소련大使가 행한 역할은 駐在國의 상황, 그 나라의 지도자가 스탈린主義 政策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하고 있는지, 그 나라에 있어서의 그 정권의 強度, 지도자 개개인의 소련과의 유대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져 있

었다. 체코슬로바키아 共産党的 쿠데타(1948년 2월) 직전에 조린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전하기 위해 프라하에 도착한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를 의심할 사람이 없다. 소련大使가 積極的 또는 消極的으로 行한 機能은 外交慣例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제 4의 非公式的인 통제는 소련 共産党和 東獨의 党機關과의 밀접한 접촉이었다. 먼저 소련色 혹은 코민테른色이 짙은 黨員, 또는 秘密警察의 경험을 가진 黨員이 党 中央委員會의 部長으로 임명되었다. 다음에 당면 문제 특히 이데올로기에 대한 소련의 견해를 助言하기 위해 소련에서 工作員이 파견되었다.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가장 有望한 党 活動家가 소련에 파견되어 訓練을 받았다.

제 5의 지레는 權力機關으로서 특히 중요한 政府部門, 보통은 秘密警察과 軍隊에, 소련이 직접 파고들어간 것이다. 그 目的은 두 가지, 즉 소련에 대한 忠誠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것과 소련에 反對할 염려가 있는 지도자가 실권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었다. 스탈린으로서 베리아 밑에 있는 소련의 비밀경찰과 東歐의 비밀 경찰망 사이에, 또는 소련軍과 東歐諸國의 軍隊 사이에 가장 굳은 유대가 맺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러웠다. 東歐에 휘몰아친 거센 추방의 暴風의 結果, 드디어 경찰은 党的 통제에서 벗어나 모스크바에 從屬하는 半獨立的인 기관이 되었으므로 소련과의 유대는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軍隊에 대한 統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에 대한 충성이 소련 軍人의 介入 이를테면 소련은 로코소프스키元帥를 폴란드國籍으로 바꾸어 폴란드 國防相으

로 보냈다 그 나라가 자기 군대만으로 統制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것, 이 2개에 의해 확보되었다.

國家關係의 제도로서의 스탈린主義의 또 한편은, 東歐諸國을 상호 간에 고립시켜 두는 것이었다. 東歐의 諸黨間의 접촉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이미 말하였으나 東歐諸國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機會는 10월 革命 紀念日 그밖의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집회 때문이었다. 一般人에 관해서는 엄중한 여행 제한이 가해지고 여행 手續의 어려움은 敵對하는 資本主義國에 가는 手續과 다름 없었다. 이런 특수한 제한이 除去된 것은 1950년~1957년이 되고서 이다. 이와 같이 東歐諸國을 흐트러 놓고 하나하나의 黨을 소련에게만 얼굴을 돌리게 함으로써 통일의 確保와 단호한 강제가 행해졌다. 소비에트 블럭 통일의 기초로서의 相互 孤立은 스탈린主義의 政治的 特色이었을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政治面에서의 2國間主義와 相互 孤立의 원칙에는 경제적인 2國主義와 自給經濟가 짝 지워졌다. 政治的 2國主義가 실제로는 소련의 支配를 意味한것과 같이 경제적 2國主義는 소비에트 블럭의 전반적 이익이란 이름 아래 소련이 東歐를 大大的으로 착취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全 소비에트 블럭을 相互間에 의존하는 경제 단위로 통합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코메콘의 章에서 取扱하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소련 경제의 발전을 優先시켰기 때문에 東歐의 經濟는 언제나 緊迫하고 政權은 더욱 더 소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해 둔다.

## 나. 마렌코프時代의 東歐

1953년 3월 5일의 스탈린의 죽음은 社會主義 陣營에 있어서의 스탈린主義의 종말이었다. 물론 스탈린의 죽음이 즉각 스탈린主義 體制의 崩壞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스탈린의 後繼者들은 될수 있는 限 前時代와의 連續性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나 스탈린의 죽음에 의해서 급속히 표면화한 새로운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우선 스탈린의 죽음에 이은 1年半(1953년 8월~1955년 2월)은 불안정한 「集團指導」에 의한 마렌코프時代였다. 그가 취한 「新政策」의 특징은 본질적으로는 스탈린主義的인 政治의 큰 틀을 一變함이 없이 스탈린主義에서 오는 경제의 疲乏 즉 생산과 소비의 과도한 不平衡을 낳은 경제의 침체를 긴급히 是正하기 위해 중공업 우선의 經濟政策을 消費財 농업생산 증대의 그것과 代置한 점에 있었다.

이러한 마렌코프의 新政策은 東歐諸國에 있어서 스탈린主義의 기본적 입장을 양보함이 없이 울적한 경제적인 불만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집단 지도를 채택한다는 政治的 양보는 실은 形式 뿐이고 東歐諸國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여기에 소련과의 차이가 있었다. 지도자가 그의 職責을 동료에게 양보한다는 소련의 모방도 행해졌으나 그것이 政治的인 의미를 갖는 것은 헝가리 뿐이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처럼 스탈린主義的인 테러가 그때까지 거의 실시되지 않았던 나라에서 도리어 이 시기에 警察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新政策을 최초로 채택한 것은 東獨이었다. 1953년 6월 9일, 東獨 共産黨은 과거의 정책을 批判하는 聲明을 냈다. 그 가운데서 宗래의 政治路線은 本質적으로 옳은 것으로 되었으며 경제적 양보가 이루어졌다. 社會主義 토대를 건설하는데 급한 나머지 나라의 内外의 실제정세를 검토할 것을 게을리했다든가 독일 민족의 대부분은 資本主義의 영향 아래 있는데 政策決定을 함에 있어 世論을 무시했던 것이 비판되었다. 중공업 중점 정책은 수정되고 1953년의 중공업 투자는 대폭 삭감되었다. 이 聲明을 發表하고 一週間後인 6월 17일에 東베를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 反亂은 소련의 실력을 시위함으로써 진압되고 그後의 新政策에 의하여 경제사정은 好轉되었으며 거기 따라서 生活水準은 현저히 개선되고 東獨은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약간 구해졌다. 東獨은 마렌코프 新政策의 테스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즉 政治的 긴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양보를 해도 좋으나 정치적 양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았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新政策을 取한 제2의 나라는 헝가리였다. 그러나 헝가리의 정세는 東獨과는 전연 달랐다. 헝가리는 新政策이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분야에까지 들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뒤떨어지고 있었던 헝가리에서는 극단적인 스탈린主義化가 強行되고 있었다. 많은 非共産主義者의 추방과 처형이 행해졌다. 그런만큼 당연한 상황을 政權이 뛰어넘는 것은 극히 複雜하고 또 위험한 일이었다. 더구나 스탈린主義의 지나친 시행이 가져온 경제적 위기는 당내에 라코시의 反對派를 만들고 있었

다. 이것은 소련의 개입에 의한 라코시의 首相파면과 나지의 首相 就任(1953년 6월)이 됐으나 이것은 헝가리내에 공공연한 政治的 對立을 낳고 말았다. 즉 라코시는 黨 第1書記로서 黨의 支配權力을 保持하고 한편 나지는 政策決定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다.

나지의 정책은 마렌코프 방식에 상당히 닮았으나, 과격한 라코시 一派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스탈린主義政策이 短期間에 실시된 위에 상황도 달랐으므로 소련보다 훨씬 尖銳한 긴장이 생기고 지도자간의 分裂이 이 긴장을 大規模的인 政治論争으로 발전시키고 말았다. 新政策을 소련에 모방하여 실시하는 것이 나지의 의도였으나 헝가리의 상황은 점차 나지로 하여금 과거의 政策 즉 스탈린主義體制의 비판을 하는 것이 되게끔 했다. 이러한 결과가 1956년 11월의 헝가리 動亂이다.

東獨과 헝가리에 잇달은 것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였다. 이 3國에서는 新政策의 採択이 政治權力의 實체에서 크게 영향하는 일은 없었다. 새 정책은 루마니아에서는 데지, 불가리아에서는 켈벤코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正統的인 스탈린主義者이며 여전히 集團化가 계속되었던 것이 주목된다.

오늘날에서 본다면 마렌코프의 政策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제법 잘 돼간것으로 생각된다. 내림세였던 生産水準은 경제개혁에 의하여 上昇을 보이고 그 위에 社會主義 건설의 본질이 버려지지 않았었다. 集團化의 계속(短期間의 중단은 있었으나)은 경제에 있

어서의 사적 소유의 최후의 유물을 일소하고 동시에 政治的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 나라를 강하게 통일하는 것이 되었다. 나라가 비교적 번영하고 黨이 강하며 反對派가 없었다는 것, 국민이 비교적 순종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新政策을 제일 뒤늦게 採択한 것은 폴란드로 1953년 10월이었다. 採択된 것도 별것은 아니었다. 당시 권력의 절정에 있었던 비에루트는 生活水準 향상의 필요를 역설했으나 政治面에서는 전연 양보하지 않았다. 경제면에서는 스탈린主義가 조심조심 제거되었다. 경제의 全般的 不安定, 광범한 貧困, 黨의 약체 등 때문에 비에루트나 벤만과 같은, 老鍊한 스탈린主義者가 빈틈없이 누르고 있던 지도부도 급격한 전환은 할 수 없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혹은 新政策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자기들의 과거에 있어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권력의 座에서 逐出은 되었지만 獄中에서 아직 살아 있는 고물카가, 옳았다는 것을 暗黙 중에 인정하는 것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新政策은 폴란드의 國內事情을 배려해서 만들어지고 그런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점차 밝혀진다. 그러나 当面은 新政策 추진에 지도자가 消極的이었던 것에 대한 大衆의 실망 때문에 문제는 차츰 政治의 영역에 옮겨졌다.

마렌코프 시대의 東歐諸國은 소련을 본따서 스탈린主義의 경제적 유산을 처리하는게 고작이었다. 그리고 마렌코프의 新政策에 대한 各國의 반응이 내용적으로 劃一的이었던 것은 그 점에서 스탈린主義의 통일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열성,

타이밍, 개인 개인의 충실의 정도 등은 처음부터 가지가지였다. 이리하여 新政策이 각나라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에 넣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스탈린 死後의 社會主義陣營의 諸關係에 일어난 변화 多樣化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것이다.

#### 다. 흐루시초프의 東歐政策

1955년 2월 8일에 있는 마렌코프의 首相辭任과 흐루시초프 黨 제 1書記에 의한 政策의 再轉換은 東歐諸國을 한층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이 되었다. 흐루시초프가 일보일보 不動한 指導者의 지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스탈린과 마찬가지로였다. 흐루시초프는 國內問題를 중심으로 黨內的 諸勢力을 잘 조종하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農業政策의 제안(1954년 2월) 黨機構의 改革,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中共訪問에 의한 兄弟黨에의 友好的 제스추어, 그리고 1954년 말부터 1955년에 걸쳐서 「工業化의 方法」과 「重工業의 發展 速度」라는 緊急 문제를 제출하여 黨中央委員會의 지지를 얻었다. 이리하여 흐루시초프는 마렌코프를 逐落시키는데 성공했다. (後任은 불가닌)

그런데 흐루시초프는 마렌코프의 消費財, 농업 생산 우선 정책을 공격해서 지도권을 빼앗은 것이므로 그 經濟政策은 당연히 중공업 중시라는 共產黨 본래의 경제 정책이 아니면 안되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스탈린 死後의 2년간에 있는 마렌코프의 완화政策이 약간이긴 하지만 성과를 올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스탈린主義 經濟政策에의 復歸는 이제까지와 같은 政治的 스탈린主義의 계속은

불가능하게 하고 말았다. 마렌코프는 경제적으로 양보하는 經濟政策을 채택하여 당면한 政治問題를 무시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네오 스탈린主義를 주장한 흐루시초프는 政治問題와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다.

흐루시초프가 直面한 문제는 社會主義陣營의 統一과 이미 싹트고 있던 각국의 多樣性を 어떻게 균형시키느냐라는 것이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약간의 偏向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으나 흐루시초프의 앞에는 각국의 共産黨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가, 소련의 경험은 어디까지 普遍的인 가치를 갖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되풀이 될 필요가 없는 歷史的인 특수 경험인 것인가, 또는 社會主義에의 다양한 길은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거기 대해서 흐루시초프는 경제적으로 네오 스탈린主義를 주장하는 한편 스탈린時代에는 想像할수조차 없던 政治的 自主性 즉 多樣性を 東歐諸國에 허용하면서 공통의 경제 정책 및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社會主義 陣營의 통일과 강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흐루시초프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련 및 東歐諸國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社會主義의 승리를 확보한다는 중심 문제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으면 社會主義 건설의 특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수단은 나라의 歷史·民族的 특색에 따라서 각가지 이다.” 여기 의하면 많은 나라가 급속한 중공업 발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적당한 政策이었다. 이리하여 東歐諸國을 차례 차례로 중공업 우선의 경

국제 정책으로 되돌아 갔다.

스탈린時代에는 東歐諸國의 독립이란 政治的 내용이 거의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 死後 東歐에서의 多樣性의 경향이 두드러져 왔으므로 스탈린 아래서는 그 독특한 방법에 의해서 保持되어 왔던 非公式的인 政治的 結付는 뚜렷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補強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생각은 西獨의 NATO 加盟이라는 국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강화되었다. 여기에 대한 回答이 「바르샤바 條約機體」의 결성과 잠자고 있던 經濟援助 相互會議 (코메콘)의 부활이었다.

1955년 5월 14일, 「友好 協力 相互援助條約」으로서 바르샤바에서 調印된 「바르샤바條約」에는 일반적인 政治協定과 軍事條項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가국은 통일 목적을 확인하고 표현은 애매한 것이지만 참가국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軍隊를 統一 指揮 下에 두고 또한 共同防衛의 목적을 위한 司令部를 둘것을 인정하고 있다. 바르샤바條約의 政治的 의도는 명백한 것이다. 즉 이條約은 참가국을 소련에 매어두고 그의 자주적 행동의 범위를 공식으로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련軍의 駐屯을 合法化 한다는 가장 중요한 正式의 약속이다. 참가국의 실체가 차츰 自主性을 갖추어 와도 主要問題에 관한 合同協議 全軍隊에 대한 소련의 司令部權을 인정한 條約의 구성 및 條約으로 부터의 탈퇴나 소련軍의 철수에 관한 규정이 전연 없으므로 해서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었다.

이러한 政治的 결합은 코메콘에 의해서 보증되었다. 코메콘은

社会主義 諸國間の 貿易促進을 주로 취급하고 있던 數年間은 활발  
하지 않았으나 1954년 경부터 활기를 띠어왔다. . . 評議會는 年1  
回以上 열리고 그 조직은 발달하고, 그 목적은 경험과 기술의 교  
류를 추진했으며 노동과 공업 생산의 分業을 촉진하고 分業을 행  
하는 것은 社会主義的 工業化가 본질적으로는 自給自足이라고 한  
스탈린主義的인 생각을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과 東歐諸國  
과의 제각기의 경제 계획을 강력하게 조정하는 것이 社会主義를  
위하여 필요하다”라 하여 경제 협력에 갖는 政治的 의의가 공공  
연히 표명되었다.

위와 같은 흐루시초프의 新路線에 있어서는 유고와의 대립은 그  
의미를 상실할뿐 아니라 흐루시초프 新路線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  
이 되었다. 東歐諸國의 변화 및 1948년 이전에 있던 티토의  
對蘇 충성을 想起한 흐루시초프는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대립은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부당한 조치인 것이며 죽은 독재자의 病的인  
증오와 공포심 의 産物」이라고 단정했다. 티토가 共產主義者로서  
국내에서 實力이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自主性을  
인정하면서 이것과 黨으로서 공통된 結부를 강조하는 결정을 한다  
면 東歐政權을 安定시키는데 있어서 모델로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  
각했던 것 같다. 東歐와 소련은 마르크스, 레닌主義라고 하는 共  
通의 이데올로기적 前提下에 엄격한 黨獨裁를 통해서 서로가 結부  
되고 뿐만아니라 經濟統合에 의하여 굳혀지는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티토의 民族共產主義를 여기에다 잘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과 유고와의 和解는 소련國內에서의 모로토프와 그

一派의 反對 및 유고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1955년 5월 말에 있는 흐루시초프 자신의 유고 訪問에 의하여 대체적인 성공에 도달했다. 6월 2일 조인된 協定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共同 宣言인 것이며 흐루시초프가 바란 것과 같은 黨이나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宣言은 유고가 社會主義를 건설하고 있는 나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위에 유고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상으로 暗黙의 양보를 했다. 즉 “社會主義, 건설의 다른 형식에 대한 상호의 존중”에 대해서 언급하고 “社會主義 建設의 經驗의 交流”에 관해 언급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유고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유고는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대한 創造的 貢獻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스스로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제도에 의하여 독자적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때문에 非스탈린的인 多樣性의 원칙이 확실히 승인되기 전에 이데올로기의 차이 黨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흐루시초프의 新路線에 위험을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고를 추방한 1948년의 코민포름決議에 대해서 흐루시초프가 애대한 태도였으므로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소련이 뚜렷이 부인한 것은 유고를 스파이의 앞잡이라고 심하게 비난한 決議(1949년 11월)뿐인 것이며 각가지 이데올로기상의 죄를 범했다고 비난한 결의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1956년 2월의 소련 共産黨 第20次 大會에 있어서의 흐루시초프의 소위 스탈린 비판의 목적은 소련의 内外 共産黨員 간에 뿌리박고 있는 스탈린主義的인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데 있었다.

호루시초프는 演說中에서 東歐諸國에 대한 스탈린의 정책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社會主義 諸國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① 社會主義는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다른 것이며 장래에는 “점점 다양하게 될” 것이다. ② 社會主義 社會를 건설하는데는 소련型 외에 東歐諸國에서 취해진 것과 같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다. 단, 호루시초프는 社會主義의 건설에 있어 무엇이 許容되며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具體的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호루시초프의 발언은 스탈린이 인정하지 않았던 제도의 다양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正統한 것으로서 허용한 것이다라고 東歐諸國은 해석하였다. 호루시초프로서는 制度上으로는 多樣하게 되어도 經濟的 結果가 굳어진다면 이윽고 보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20차 大會 이후 호루시초프는 소련과 유고간의 이데올로기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급속히 진행하였다. 1956년 4월에 코민포름이 해산되고 6월에 호루시초프는 모스크바에서 티토와 재차 會談하였다. 會談의 분위기는 전번과는 달리 열광적인 것이었다. 20次 大會는 유고가 소련에 대해서 품고 있던 危懼를 일소하였다. 유고는 20次 大會가 1948년에 있어서 티토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유고는 黨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접근을 全面的으로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7월 20일의 소련 유고 共同宣言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였다. “社會主義 발전의 길과 諸條件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社會主義 발전의 형식이 풍부한 것은 社會主

主義의 強化에 貢獻이며 社會主義 발전의 道路 形式을 決定할 때  
一方의 견해를 他에게 强요하는 따위는 兩黨이 全然 취하지 않는  
바이다"라고.

이리하여 스탈린主義는 티토主義에 對한 對立的인 姿態을 보였다. 그러나  
나 흐루시초프는 실로 마르크스 主義者 답지 않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티토는 이미 옛날의 티토는 아니었으며, 유고는 制度와  
이데올로기 兩面에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1년 가까운 동안 흐루시초프와  
티토는 어색한 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共同으로 非스탈린主義化에  
반대하는 内外의 세력과 싸웠다. 그러나 이것을 둘러싸고 東歐諸  
國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 3. 非스탈린化와 東歐諸國의 動搖

#### 가. 非스탈린化와 東歐諸國의 動搖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非스탈린主義化는 그 직접의 대상인 東歐諸  
國의 스탈린主義者가 소련과 달리 當時 政權의 最高 地位에 坐  
하였다는 점에서 그 政權의 土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  
들은 스탈린主義 및 그와 對立의 關係에 있던 反티토主義에 의하  
여 權력을 얻었던 것이다. 그 티토와 흐루시초프가 和解했음뿐  
아니라 共同으로 스탈린主義의 一掃에 나섰다고 해석하였으므로 그  
들이 받은 쇼크는 컸다. 소련 지도자의 경우는 非스탈린主義化가  
실패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의 地位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나  
東歐指導者의 경우 이 政策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자기들의 地位를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歐諸國의 政權은 밖으로부터 壓力을 加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多樣性이라는 전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티토가 東歐諸國에 대해서 소련에게 배우라고 要求하였으니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10년에 걸친 스탈린主義 지배가 一朝一夕에 사라질리는 없었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소련을 본따서 個人崇拜의 배척 및 많건 적건 國內의 자유화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東歐에 있어서의 스탈린主義는 한발한 발 무너져갔다.

이 점에서 가장 進歩된 것은 폴란드였다. 폴란드에서는 전통적인 反러시아感情도 결들여 이미 20次 大會 이전부터 非스탈린化가 시작되고 있었다. 즉 1955년의 메이테이에는 지난 1938년에 스탈린에 의하여 스파이로서 처형된 黨 指導者의 명예가 회복되고 1956년 2월 19일 20次 大會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서 1938년의 스탈린에 의한 폴란드共産黨의 탄압이 잘못이었다고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다 3월 12일 폴란드의 「小스탈린」인 비에루트의 死亡으로 非스탈린化를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4월 6일 비에루트로부터 티토主義者, 民族主義者로서 공격되고 체포되었던 前 黨書記長 고물카가 復黨하게 되었다. 같은 달 말에는 大赦로 1,500명의 政治犯을 포함한 3만명이 석방되고 7만명이 감형되는 한편 비밀 경찰 長官 라도키에비츠를 비롯하여 法務檢察總長 軍法會議主席檢察官 등 과거 숙청 재판의 관계자는 전부 파면되었다. 폴란드에 있어서의 스탈린主義 숙청의 主役이었던 벨만은 5월 6일 드디어 辭職하였다. 議會에 있어서의

토론은 놀란만큼 대담할 정도로 자유스럽고 활발하게 되었다. 지식인의 토론그룹이 설립되고 새로운 新聞이 발간되고 社會主義에의 독자적인 길에 대해서 활발하게 論議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 27일 라이크의 명예가 회복되고 黨 第1書記 라코시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 불가리아에서도 4월 14일 코스토프의 명예가 회복되고 「小스탈린」의 첼벤코프는 3일후 首相의 지위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東獨은 非스탈린化의 실시를 연기 시키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東歐에서의 非스탈린 主義化가 폴란드에서, 포즈난暴動(6월)과 10월 政變을 낳았고 헝가리에서 10월말부터 11월 초순에 걸쳐서 유혈의 비극을 가져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本書에서는 各國別의 章에서 상세히 취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헝가리動亂과 이에 잇달아 일어난 소련군에 의한 나지 前 헝가리首相의 연행 사건은 한때는 완전히 和解한 것처럼 보이던 소련 유고 관계를 종전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헝가리動亂이 아직 끝나지 않은 11월 11일 티토는 아드리아海에 임하는 푸라의 黨員集會에서 大演說을 하였다. 티토는 전에 유고슬라비아를 中傷한 자들이 폴란드와 헝가리 사건 이래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責任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非스탈린主義化가 流産되려고 하는 사실에 실망을 표시하였다.

“이와같은 배신적인 경향은 다스리기 힘드는 스탈린主義者가 낳은 것이다. 그들은 各國 共產黨内部에 아직도 그 지위를 유지하

고 있어 또다시 支配權을 확립하고 자국민 뿐 아니라 他國民에게까지 스탈린主義的 경향을 강요할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티토의 비판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흐루시초프의 政策欠陷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첫째로 東歐의 동란의 원인은 스탈린 비판의 方法 그 자체, 즉 안이하고 조잡하며 不徹底한 방법에 있었다.

“흐루시초프에 의하면 모든 것은 개인 숭배의 문제이고 그 발생을 가능하게한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는 制度에 대해서는 투쟁하지 않았다”라고 티토는 비판한다(이 비판은 이탈리아 공산당수인 트리아치의 그것에 가깝다). 둘째로 소련과 유고 사이에 맺어진 「평등한 關係」의 확인은 “양국 關係에 뿐아니라 모든 社會主義 諸國間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련은 東歐諸國의 革命勢力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후에 범하게 된 잘못의 전부는 이 신뢰의 欠如에 기인하고 있다(이 점은 샤프트르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티토는 헝가리事件에 관해서 흐루시초프는 라코시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不誠實한 人間」에게 그릇된 期待를 걸고 오랫동안 그를 權力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아무래도 그로서는 안되게 되자 心腹인 게레를 뒤에 앉히는 잘못까지 범하였다. 게레는 평화적인 데모隊를 「暴徒」로 부르고 소련軍의 개입을 요청하는 따위의 決定的 誤謬를 자행하였다.

“他國 軍隊에 의존하여 자국의 人民을 교육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그 결과 反動勢力이 끼어 들어 성실한 共產主義者들도 反動勢力과 본의 아니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

었다. 티토는 게레의 要求에 의하여 행해진 소련軍의 제 1차 干涉 ( 10월 23일 ) 은 「절대로 잘못」이 었으나 게레의 鼻劣, 소련軍의 경솔, 나치의 무력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反動派의 跳梁에 의하여 이미 사태가 「새로운 世界戰爭이나 소련軍의 재차의 간섭이나」라는 곳까지 와버린 이상 「보다 적은 악」으로서 소련軍의 제 2차 干涉 ( 11월 4일 ) 의 필요를 인정하고 따라서 카다르政權까지도 支持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 티토는 西歐의 知識人에 비해서 훨씬 소련의 입장에 동정적인 것이다. 결론으로서 그는 헝가리 事件을 「最後의 悲劇」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탈린主義를 일소하고 「좀더 앞이 보이는 共產主義者」를 신뢰하고 “否定的인 면에 비판을 가하고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 이 점에서 그의 의견은 다음에 말하는 中共의 소련 비판과 상통한다 ) “ 1948년 이래 유고에서 시작되고 이제 막 폴란드에서 계속되고 있는 과정을 추진하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 연설은 스탈린 비판 및 헝가리사건의 평가로서 公平한 것이었으나 <프라우다>紙는 11월 19일, 격한 語調로 여기에 反論하고 그 후 同紙와 유고의 黨機關紙 <보르바>紙와의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흐루시초프로서는 非스탈린主義化를 추진함으로써 社會主義陣營을 해체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스탈린비판에 있어서 미리 그것이 内外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것이나, 그 후 急展開된 사태는 그의 예상을 훨씬 넘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헝가리 事件이나 이에 따라서 생긴 각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크레믈

린 内部에 強硬派와 緩和派間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고 한들 흐루  
시초프의 언동은 冷靜을 欠하고, 히스테릭한 것이며, 그 정책은 無  
能하다고 할수 밖에 없었다.

#### 나. 社會主義 陣營의 再統一

1956년말 社會主義 陣營은 해체 직전에 있었다. 그런데 同年  
말인 12월 29일 中共이 같은 날자로 <人民日報>紙에 발표한 논문  
「재차 프롤레타리아독재의 歴史的 經驗에 대해서」는 社會主義 陣  
營內의 혼란을 收拾하고 대립을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  
문에 제시된 中共의 입장을 한마디로 한다면 社會主義 陣營에 있  
어서의 소련의 지도적 지위의 승인과 티토를 修正主義로 단정한  
일이었다. 즉 中共은 분명, 티토를 염두에 두고 “教條主義(소련  
이나 헝가리의 黨指導者를 가르킨다)에 철저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됨과 동시에 修正主義에도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각국의 특수성에만 主眼을 두고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보편성을 갖  
는 基本的원리를 부인하는 것을 경계하고 여기에 관련하여 헝가리  
事件을 帝國主義者의 策謀로 규정짓고 소련의 武力干涉은 어쩔 수  
없었다고 전면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帝國主義의 공격에 대항  
하기 위해서 “소련을 中心으로 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  
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의 절박한 임무이다”라고 강조하였다.

社會主義 陣營內의 혼란收拾과 思想的 統一이라는 政治的 立場에  
서 쓰여진 이 논문이, 혼란을 야기시킨 当事者인 소련이 아닌 혼  
란의 회오리바람의 圈外에 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独自の인 길

을 착실하게 걸어온 中共 (앞에서 말한 <보르바>와의 논쟁 가운데서 <프라우다>는 中共이 독자의 길을 걸어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조금도 그것을 他國에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으로부터 發言된 것은 티토를 비롯하여 소련에 비판적인 共產主義者 (당시 中共의 방식은 폴란드의 고물카에게 큰 刺戟을 주고 있었다) 에 대해서도 상당한 說得力을 갖고 있었다.

사실 이 논문은 <더 타임즈>紙가 지적한 바와 같이 老大人이 “친절하고 분별도 있고 확고한 태도”로 社會主義 陣營이 직면하고 있는 諸問題의 하나하나에 회답을 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내일의 훈계」와 「教訓」을 내린 것이었다. 中共은 「여태까지 소련에게만 허용되었던 권위에 넘친 자신」을 가지고 말하고 “바야흐로 中共은 소련과 완전한 對等者로서 또한 理論的인 분야에서는 오히려 소련 이상의 權威者”로서 행세한 것이었다.

유고는 中共이 스탈린主義를 支持한데 대해 실망하고 그것을 비판하였으나 (오늘날의 이른바 中·蘇論争에 있어서의 中共의 頑固한 입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당시의 中共은 「修正主義」라는 아슬아슬한 근처까지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세에는 소련에 대한 것과 같은 분노는 없고 오히려 친구에게 버림받은 슬픔의 정이 깃들여 있었다. 유고로서는 中共의 발언이 國際政治情勢에 좌우된 것이며 조만간 中共이 본래의 입장에 돌아온다. 즉 티토쪽으로 가까워지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다. 한편 助力者를 얻은 소련은 우선 <프라우다>紙가 1만 6천이나 되는 이 大論文을 訳載함과 동시에 흐루시초프는 재빨리 이 논문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民族的 특수성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社會主義革命의 기본적 법칙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에의 독자적 길을 不當하게 강조하는 것은 社會主義의 大道를, 그릇되게 하는 것이된다”고. 이리하여 中共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흐루시초프는 1957년 元月 일찍 불가닌과 함께 부다페스트에 들어 닥쳐서 카다르 등 헝가리 首腦 외에도 불가리아·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의 黨首腦를 불러들여 4일까지 소련 東歐 5 個国会議 (폴란드가 참가하고 있지 않음에 주의) 를 열었다. 이어서 모스크바에서 東獨首腦와의 會談, 7일에는 東南아시아 방문 여행을 급거 중단하고 모스크바에 들어온 中共의 周恩來와 東獨首腦와의 會談, 10일에는 카다르를 불러서 소련·中共·헝가리 3 國會談으로 있고 그 위에 周恩來가 11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헝가리를 訪問하여 양국의 지도자와 이야기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周恩來와 소련首腦 사이에서 최후의 결말로서 中·蘇會談을 한다고 하는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흐루시초프가 周恩來를 일부러 모스크바로 초청한 것은 이미 폴란드에 대해서 권위를 失墮한 소련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中共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즉 고물카를 설득하여 폴란드가 너무 독자적 길을 가버리지 않게 하고 폴란드를 社會主義 陣營에 돌아오게 하는 즉 소련의 指導的 지위를 인정시키는 역할을 周恩來에게 기대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中共은 폴란드의 고물카를 분명히 지지하고 또한 고물카는 毛沢東의 방식을 스스로의 모범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周恩來의

설득력으로서도 일단 自由化의 길로 내딛기 시작한 폴란드를 본래 대로 돌릴 수는 없었다. 하기는 周恩来와 고물카는 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공표하지 않을 것, 그 견해를 他國에 강요하지 말 것, 그리고 社會主義 諸國間의 관계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인 것이며 단순한 共存이 아니라는 생각을 인정할 것으로 분명히 의견은 일치하였다. 폴란드가 소련의 지도권을 공식으로 승인하는 것을 頑強히 부정하였다고는 하나 中共이 당시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폴란드를 支持한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中共으로 부터 鼓舞된 것은 흐루시초프 뿐은 아니었다. 東歐諸國의 스탈린主義者들은 흐루시초프의 非스탈린主義化 더욱 티토와의 和解의 위험성을 看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흐루시초프보다도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소련의 지도권을 無條件으로 승인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힘은 커졌다. 소련이 아무와도 상의하는 일없이 社會主義 陣營의 新路線을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티토에게는 반대하면서 社會主義 陣營의 단결을 위하여 흐루시초프에게 압력을 가했다. 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東獨은 일제히 티토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장 심했던 것은 티토의 宿敵인 알바니아였다.

폴란드를 되돌려서 社會主義 陣營을 통일하려고 하는 소련과 中共의 노력은 1957년 11월 러시아革命 40주년 紀念祝典을 맞아 열린 共産黨 指導者 會議에서 성과를 올렸다. 소련의 지도권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모든 黨으로부터 되풀이하여 나왔다. 中共을

·대표하여 출석한 毛沢東은 “社会主義 陣營에는 하나의 지도적 중심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 중심은 소련이다. 모든 나라의 共產黨 사이에는 하나의 지도적 중심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 중심은 소련 共產黨이다”라고 강조하였다. 毛沢東의 이 연설은 中共에 기대를 걸고 있던 고물카에게 있어서는 쇼킹한 사실이었으며 한편 소련 및 東歐諸國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이리하여 고립된 고물카는 마침내 소련의 지도권을 승인하였다.

유고는 이 共產黨 會議에 出席을 하였으나 同大會에 있어서 政權의 자리에 있는 12개국의 共產黨들 사이에서 討議採択된 「12개국 共產黨 勞動者黨의 宣言」(이 宣言은 1960년의 「81개국 共產黨·勞動黨의 聲明」과 함께 中·蘇論爭에서 雙方이 그 이론적 근거로서 가끔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어서 유고는 1958년 3월 黨 綱領 초안을 발표했다. 이 綱領은 동년 4월에 열린 同黨 第7次 大會에서 채택되었으나 소련과 中共의 雙方에 향하여 유고슬라비아의 「修正主義」가 反스탈린主義와 다르고 유고슬라비아의 黨權力과 맺어지고 있으며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創造的인 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同綱領에 대해서 우선 소련, 이어서 中共 그리고 東歐諸國으로부터 修正主義라는 공격이 퍼부어졌다. 이 「유고슬라비아 修正主義 反對」를 통하여 社会主義·陣營은 한층 공고히 통일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흐루시초프는 中共을 비롯하여 東歐諸國의 지지에 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만큼 그러한 나라들로 부터의 압력도 컸다. 社会主義 陣營은 1957년 前半期에 있어서 통일을

가져온 같은 요소에 의하여 점차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 4. 東歐의 多樣化

1950년대의 마지막에는 東歐는 무사히 社會主義 陣營으로 돌아온듯이 보였다. 그러나 東歐諸國이 결코 본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 안가서 밝혀졌다. 1958년 여름 소련은 루마니아로부터 軍隊를 철수하였다. 이 조치는 西歐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었으나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기 전에 루마니아는 처음으로 西歐에 借款을 구하는 공공연한 움직임을 보이고 코메콘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동년 11월의 黨中央總會에서는 코메콘에의 루마니아의 貿易依存을 약하게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이 방향 轉換의 효과는 1960이 되어서 처음으로 눈에 띄게 되었다.

1960년부터 61년에 걸쳐 中·蘇關係가 험악화하는 한편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가 차츰 개선되었다. 알바니아는 유고에 대한 공포와 증오심에서 1955년경부터 차츰 中共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0년 여름 黨內的 肅清을 행한 후 동년 11월의 모스크바 81개국 共產黨會議에서 中共의 입장을 공공연히 지지하였다. 소련은 알바니아를 外交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도 制裁를 가했다. 1961년부터, 62년에 걸쳐서 소련·알바니아의 무역은 3분의 1로 줄고 1963년에는 거의 끊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61년부터 63년까지의 중요한 3년간에 체코·폴란드·루마니아의 3國은 알바니아와의 貿易量을 계속 유지하든가 혹은 증대했던

것이다. 다른 소련의 盟友諸국에도 소련을 본따서 알바니아와의 경제 관계를 단절한 곳은 없었다. 1948년 소련과 유고의 決裂 후 코민포름 全加盟國이 완전한 경제 보이코트를 유고에 가한 사실에 미루어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련·東獨·체코의 3國은 코메콘을 그때까지 이상으로 加盟者國의 자원을 조정하고 사용하는 큰 권한을 갖는 超國家機關으로 개조하려고 했다. 루마니아는 이러한 시도에 강하게 반대했을뿐 아니라 中·蘇論争에 있어서의 中立, 알바니아와의 국교 回復, U N에서의 自主外交, 西歐와의 外交·通商·文化提携擴大의 움직임 등 그 自主性이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련에게 명시했다. 1964년에는 폴란드의 고물카와 헝가리의 카다르가 소련의 世界共産黨會議 準備會議의 소집을 지지할 것을 주저했다. 새로운 世界共産黨會議는 世界共産主義 運動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폴란드도 헝가리도 그리고 또 루마니아도 中共과 그의 一派가 소련과 決裂한다면 中·蘇對立을 이용하여 협상의 힘을 강화해 온 東歐諸國에 대해서 소련이 한층 嚴한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소련과 東歐諸國間의 관계가 차츰 완화된 것은 흐루시초프가 東歐諸國에 자유를 허용할 경향을 보인 때문인가, 아니면 力關係의 변화나 中·蘇對立과 각국 내의 정세 등 소련의 政策이 작용하는 현실의 환경이 변화한데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1956년 이래 흐루시초프가 演出한 역할을 검토한다면 그가 의식적으로 東歐諸國內에 自主的인 경향을 키워왔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도 이상으로 自主的 경향을 默認했다고 볼 수도 없다. 흐루시초프가 1956년 10월 폴란드의 內政에 노골적으로 간섭한 일, 헝가리 革命을 탄압한 일, 1962년에 불가리에 압력을 가해서 유고프 기타의 黨指導者를 肅清시켰던 일, 발전이 뒤진 諸國의 의사에 반하여 스스로 코메콘을 超國家的 調整機關으로 전환하려던 일 등은 그가 東歐를 소련의 支配下에 매어 두려고 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흐루시초프가 東歐에 대해서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스탈린時代에는 볼 수 없었던 團結心을 社會主義陣營 내부에 만들어 내리려고 하여, 東歐諸國의 지도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人望을 모았던 것은 사실이다.

흐루시초프의 東歐 政策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흐루시초프의 功績에 즈음하여 東歐諸國의 黨 指導者가 보여준 태도가 하나의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흐루시초프 退陣後에 東歐의 지도자들이 흐루시초프를 칭찬했던 일은 소련과 東歐諸國間의 관계 개선에 그가 개인적으로 이룩한 역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것인가.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스탈린主義的인 支配方式의 부활을 겁냈다면 權力鬭爭에서 패배한 직후의 사람을 칭찬하여 새로운 소련의 지도자를 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妥當한 견해는 이러하다. 즉 그들이 흐루시초프 治下에서 달성한 自主的 지위는 이미 번복할 수 없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장차 그것을 한층 더 확대할 심산이라는 것을 소련의 新指導者에게 전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또한 흐루시초프의 개

인적인 性向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인 모든 힘이 東歐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의 指導者로서도 현재의 사태를 받아들이고 共產主義 世界事情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이제부터는 한층 저하할 것이라는 운명에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하나 흐루시초프 失脚 전과 같이 현재에 있어서도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東歐諸國은 民族主義나 대중의 독립의 願望을 이용하여 소련에게 대항하고 中共의 陣營에 머물든가 혹은 中蘇對立에서 中立을 선언하든가의 가능성은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東獨의 울브리히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의 支持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 폴란드의 고물카는 西獨을 봉쇄하고 오데르 나이세의 國境線을 지키기 위해서 폴란드는 소련과 緊密히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노보트니는 곤란한 경제사정에 머리를 썩히고 있었다. 機械製品을 수출하는데 소련市場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면 東歐 제국을 자랑하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 기구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1961년에 中·蘇對立에 의하여 中共과의 貿易이 大幅으로 削減되어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는 大打擊을 입고 있었다. 헝가리의 카다르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헝가리 事件때 소련의 武力에 의하여 권력의 座에 앉혀진 것이며 트란실바니아에 있어서의 헝가리 少數民族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近年 루마니아로부터 차별대우와 박해를 받아왔다고 한다) 소련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지프코프는

호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主義者인 켈렌코프 추방후 政權의 자리에 앉았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에 충성을 맹세하고 예속해온 긴 전통을 갖고 있으며 소련은 아낌없이 경제 원조를 주고 이 전통을 살려 오고 있다.

그러나 東歐諸國은 호루시초프의 非스탈린主義化에 의하여 社會主義에의 길을 걷는데 또한 政策決定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自主性을 取하는 權限을 갖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行動半徑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共產主義라는 이데올로기는 이미 知識人들 사이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西歐思想의 침투를 저지할 수 없다. 마르크스 레닌主義는 추상적이고 柔軟性을 欠하며 黨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농민·지식인을 협력시키는 적당한 武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 더욱 형편이 나쁘게도 이데올로기를 彈力있게 해석할 수 있는 제 1급의 지식인을 현재의 東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헝가리의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主義 理論家들은 스탈린主義下에서 教훈을 배워 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서까지 發言하는 일은 두번 다시 없을 것이다.

국제 긴장의 완화가 東歐의 共產政權을 不安定하게 하고 있는 큰 요인인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디오·여행자·상당히 공공연히 반입된 書籍 등을 통해서 東歐와 西歐와의 접촉, 소련을 포함한 東歐諸國間 知識人의 교류와 連帶, 혹은 또 국경의 저쪽인 폴란드 農民이 자기 땅을 耕作하고 있는 것을 슬

로바키아地方의 集團農民이 알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바야흐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民族主義 감정이 재차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主義 입장에 의한 역사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의 民族的 對立感情은 엄존하고 있다.

체코(보헤미아)인의 지배에 대한 최근의 슬로바키아인의 저항이 보여주듯이 少數民族主義는 中央集權政治에 도전하고 있다. 헝가리는 트란실바니아의 상실에 한탄하고 루마니아는 벤티사라비아를 엿보고 불가리아는 북도브르자과 마케도니아의 一部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民族問題는 국가간의 관계를 자극한다고 생각된다. 슬로바키아의 歷史家들은 1944년 8월의 슬로바키아 봉기나 스탈린主義 시대에 탄핵된 크레멘티스·노보메스키·후사크 分派의 偏向에 대한 党的 公式態度를 근거로부터 시정하기 위한 鬪爭에 關係하여 제2차 大戦 전과 大戦中 및 直後에 있어서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關係가 재검토되어 왔고 이미 노보트니의 逐出, 두브체크의 좌절로 오늘날 후사크는 체코슬로바키아共産党 第1書記에 軍臨하여 체코사태의 遺産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共産党 특히 데지의 역할을 크게 취급하고 루마니아해방에 있어서 소련의 역할을 暗黙中에 경시했다. 루마니아해방의 역사를 오늘날 소련과 루마니아간 對立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외에 제1차 大戦前의 역사에 관해서도 이를테면 헝가리=오스트리아 2重帝國이나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어서 최초의(즉 베네슈의) 共産國에 대한 起源을 둘러싸고도 社会主義 内部에서 論爭이 일고 있다.

社会主義 陣營内の 破壞的인 諸要素 가운데 가장 強力한 衝격을

주고 있는 것은 경제의 실패이다. 党内的 동요, 그밖의 불만의  
원인과 관련하여 경제의 실패가 생길때 그것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경제의 실패는 党的 分裂을 조장하고 이데올로기상의 압  
력을 더욱더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反對로 党이 높은 工  
業成長率과 國民生活 水準의 향상을 동시에 자랑할 수가 있다면  
党内的 對立이 해소되는 한편 이데올로기상의 싸움은 한층 더 심  
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체코슬로바키  
아의 한 經濟學者가 1964年 9월에 발표한 「經濟半循環說」(The  
Theory of Economic Semicycle)을 들 수 있다. 이것은 社會  
主義國의 경제학자가 社會主義諸國내의 경제 변동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며 그의 경제 분석에 경제 변동의 정치적 측면을 보태면  
다음과 같이 된다. 「半循環」은 대단히 유리한 기간, 이를테면  
戰災로부터의 復興期라든지 2~3년 계속된 豊作 후든가 각가지  
投資의 「末端」이 最近 完了하여 당면에 사용할 수 있는 諸資源  
에 거의 희생을 바라지 않고 생산 능력을 증가할 수 있을 때에  
시작된다. 그런 경우 유리한 條件이 금후에도 계속된다는 「主觀  
的인 期待」에서 그후 數年間의 計劃이 立案된다. 그러나 애로와  
그의 障害가 얼마 안가 발생하여 앞의 야심적 계획의 달성을 위  
태롭게 한다. 計劃을 구하기 위해 노동에 대해서 압력이 가해지  
고 임금통제가 강화되고 党은 모든 面에서 規律의 강화를 호소한  
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 공격이 점점 강해지고 反對意見을 부르  
짖든지, 중요한 문제 이를테면 경제 제도의 결함을 論議하든지 할  
여지가 없어진다. 당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이 集結되지

않으면 안된다. 뒤에 危機가 깊어지면 최초의 계획이 放棄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삭감되고 확대 템포가 약화되고 經濟制度에의 압력이 완화된다. 이것이 自由化의 전환점이다. 하나 党은 여전히 지도부를 지도하고 計劃을 救濟할 수 있는 가망이 충분히 있다면 성공이 달성될때까지 경제 및 이데올로기상의 공격이 계속하여 전개되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이 공식의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킬만한 理念의 침투, 党内외의 내셔널리즘의 대두, 国濟 긴장의 완화, 소련과의 관계 완화 등 東歐의 現政權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東歐의 발전한 나라와 뒤진 나라 사이에는 이미 利害關係의 충돌을 제거하는데 큰 困難을 느끼고 있다. 코메콘은 더해가는 民族主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폴리센트리즘」(多數中心主義 Policentrism)이라는 말은 1956년의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에 즈음하여 이탈리아共産黨의 트리아치가 처음으로 제창한 것이지만 그 폴리센트리즘은 東歐 自立化 傾向가운데서 이제 현실적 힘이 되었다. 트리아치는 1964년 8월말 施行地인 알타에서 急死하기 직전 社會主義陣營과 國際共産主義運動의 현실을 直視한 「独自の 길」만이 “우리들의 進歩 發展에 있어서 不可欠의 조건이라는 것을 힘있게 단언한다”라는 유서를 썼다. 이 유서를 공표하느냐 어쩌느냐로 소련共産黨과 이탈리아共産黨 사이에 격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소련이 어떻게 생각하든 社會主義 陣營의 현실은 확실히 다양한 독자적 길을 걷고 있다. 트리아치의 유서가 東歐諸國으로부터 共感을 갖

고 받아 들여진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리하여 소련과 中共 외에 또 하나 東歐라는 존재가 등장해 온 것이나 이 東歐는 이른바 불력은 아니다. 소련으로 부터의 압력을 배제함과 동시에 西方側의 세력 아래 들어가는 것도 회피한다는 共通의 目標로 완만한 同盟的 關係를 形成하고 있으나 각 나라가 갖는 國家的 利益에 의하여 더욱 分極化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西歐의 입장으로 보아서 東歐에 있어서의 解體의 징조를 발견하고 안이한 기쁨에 잠기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소련에 대항하는 일이 그대로 西方側에 붙는 일은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소련의 統制力이 약해진 후의 東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단 東歐諸國의 장래에 관해서 다음 일을 念頭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東歐諸國은 平和共存 가운데 切實한 國家利益을 걸고 있는 것이다.

### 三. 東歐共產圈의 變動展望

#### 1.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問題提起

國際共產主義運動은 세계의 人口·面積의 3分の1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 勢力伸張의 피크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1956년 소련 자체에서 일어난 스탈린格下運動과 東歐의 動搖, 특히 헝가리 사변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에네르기가 「外向」으로부터 「内向」으로 방향전환을 개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1962년부터 公開的·敵對的 성격을 드러내게 된 「中·蘇紛糾」를 信號로 그 運動은 다시는 만회 못할 내리막 길을 걸게 된 것이다.

드디어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적 褪色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휩쓴 自由化運動을 收拾함에 있어 소련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단이 世界輿論의 糾彈을 무릅써야만 했던 침략적 武力介入뿐이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었다. 이 경우에 모스크바가 적용한 군색한 변명이 「브레즈네프 독트린」 또는 「制限主權論」이라고 불리워진다. 소련은 그와 같은 軍事侵略으로 날로 遠心作用을 벌이려는 東歐를 자기 勢力圈에 계속 장악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모스크바를 國際共產主義運動의 메카로 환원시키는데는 終局的으로 失敗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소련 자신은 브레즈네프 독트린 또는 制限主權論이라는 外部世界の 命名에 펄쩍 뛰며 그 否定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說得力은 거의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9년 6월 4일 브레즈네프 소련 共產黨 中央委員會 書記長은

당시 모스크바에서 가파스로 개최중이던 世界共産党會議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부르조아諸國은 어떻게 하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원칙을 중상하고 이 원칙을 諸國의 勞動運動 및 共産主義運動의 各 隊伍의 獨立·主權·平等 諸原則과 억지로 對峙시키려고 한다. 그리하여 帝國主義의 宣傳家들은 이른바 制限主權論이라고 하는 이론을 날조해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이 反論은 소위 「부르조아諸國」에서 보다도 共産國家인 中共과 루마니아에 의해 훨씬 날카롭게 반박되고 있는 형편이다. 中共은 소련을 「社會帝國主義」라고 규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편 루마니아는 中共에 비해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반박의 표현이 間接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차우세스쿠 國家評議會議長은 世界共産党會議 직전인 4월 10일 연설에서 “루마니아의 安全과 外交活動의 諸問題를 결정할 자격을 가진 것은 루마니아의 憲法機關때 문이며, 이 憲法機關만이 우리나라의 領土에 대한 外國軍隊의 進駐를 승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 했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侵入 正當化 노력에 대한 간접적 거부였던 것이다. 이 演說에 앞서 루마니아 外相 메네스코의 모스크바 訪問에 즈음하여 소련 共産党中央委機關紙 프라우다는 “民族主義란 西方側이 社會主義國家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고 사용하는 道具”라고 쓴바 있다.

어쨌든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란 소련 追從式 「團結」 또는 소련이 인정하는 路線으로부터 逸脫하려는 共産國에 대해서는 소련

이 武力介入할 權利가 있다는 따위의 실제 행동면의 주장에 대한 指稱인 것이다. 하기야 소련은 그 독트린을 1956년의 헝가리,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등 東歐弱小國에는 適用할 수 있었으나 만만찮은 中共에 대해서는 끝내 適用하지 못하고 있다.

## 2. 「理論」構成과 「힘關係」

애당초 소련의 「兄弟國」에 대한 武力侵略行爲는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多元化 과정에 나타난 末期現象으로써 그 어떤 「理論」構成으로도 正當化할 바 아닌 「힘關係」에 불과한 것이다.

편의상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指稱되는 「理論」의 馬脚은 各黨間의 「自主平等」의 謳歌와 '동시에' 소련 중심의 「行動 統一」을 強調하는 모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69년 世界共產黨會議의 基本文書 「現段階에서의 反帝國鬭爭의 課題와 共產黨, 勞動黨 및 모든 反帝勢力의 行動의 統一」은 소위 각국 「兄弟黨間의 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兄弟黨間의 相互關係의 기초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連帶性, 相互간의 지지, 自主와 平等의 尊重, 內政不干涉의 원칙이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중심 指導部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兄弟黨들의 行動의 자발적인 접근의 意義가 유난히 크다……

共產黨·勞動黨들의 民族的 責任과 國際的 責任은 不可不離이다. 共產黨의 活動에서 條件의 多樣性, 실천적 任務에 대한 態도의 相違,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은 國

際舞台와 특히 反帝鬪爭의 根本問題에서의 兄弟黨들의 일치한 행동의 障害로 되어서는 안된다.

애당초 이 「基本文書」는 어색한 妥協의 産物이어서 모순투성이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련이 69년 6월 ( 5~18일 ) 의 이 회의에서 노린 것은 ① 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武力 内政干渉의 정당화 ② 申共에 대한 破門宣言 ③ 「反帝」鬪爭 標榜등으로 모스크바가 계속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센터로 남아 있으려는 打算이었다. 그러나 「基本文書」도 自認했듯이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中心指導部는 이미 存在않는」 옛말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회의를 外面, 不參, 비난한 共產黨들이 적지 않았을 뿐더러 參加黨들이라 해도 그들조차 會議場에서의 行動統一이 不可能했던 것이다.

결국 체코에 대한 武力介入은 뚜렷이 정당화할 수 없었고 中共破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작 各국 共產黨들은 會議主催國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로 이른바 「反帝鬪爭」을 명분삼아 소련이 요구한 「行動統一」을 모호하게 인정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基本文書」가 「内政不干渉을 다짐한 것은 소련을 빈정대는 말로도 해석된다. 三尺童子라도 武力介入과 内政不干渉이 兩立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체코 共產黨의 경우 소련軍隊進駐를 요청한 바 없었을 뿐더러 그 자체가 바르샤바同盟 脱退등을 宣言한 바도 없었다. 그들은 國民輿論의 要請인 自主와 自由를 모색했을 따름 이었다. 한편 소련은 그 軍事力으로 「條件의 多樣性」, 「態度의 相違」, 「見解의 차이」를 조작하여 劃一性을 강요했음을 드러 내

있던 것이다.

그런데 世界共産党會議은 60년에 개최하였을 적에 参加党이 91개였던 것이 69년에는 75개로 줄어들었다. 그 9년간에 共産圈의 多元化가 걸잡을 수 없는 우열상을 보였는데, 두드러진 사건으로 들것은 中·蘇紛糾의 심각화와 체코 사태였다.

그나마 이번에는 参加党들조차 支離滅裂相을 여지없이 확인케 했다. 가령 ① 도미니카 共産党代表와 업저버만을 파견한 쿠바 및 쉬든 共産党은 基本文書에의 서명을 거부했으며, ② 서명을 「保留」한다는 党이 3개, ③ 「条件附」 또는 「部分的」으로 서명한다는 党이 8개에 달했던 것이다. 署名한 党이라 해도 루마니아의 경우는 소련의 武力行使可能性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부득이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한편 中共과 알바니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입장은 다르지만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北傀와 越盟등 5개 執權共産党 외에도 日本 및 네덜란드의 共産党들은 애당초 會議를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고작해야 소련 共産党的 브레즈네프 體制는 그 国内政治 分野에서 ① 執權党으로서의 체면 유지 ② 날로 증대하는 소련군부에 대한 일종의 무마적 작용등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이다. 요컨대 世稱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도리어 世界共産党會議는 소련 共産党的 體面 糊塗 노력의 그늘에 마이너스 面을 더 많이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예컨대 日本共産党은 “世界共産党會議의 強行은 國際共産主義運動의

團結에 기여하기는 커녕 거꾸로 損害를 가져올 뿐"이라고 성명했다. (<赤旗>紙 69년 6월 5일자) 會議期間에 소련의 歴史學者 포트로 야키르 등 10명의 著名한 知識人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各國 代表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가운데 브레즈네프 政權이 자행하는 "政治裁判과 反政府言論에 대한 정신적 감시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수 치스러운 汚点"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通信, 6월 3일자)

<프라우다>紙조차도 招請해 온 各國 代表들의 체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데서 會議期間인 6월 8일자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介入은 重大 과오"라고 한 호주 共產黨代表의 演說 內容을 보도했었다.

그 당시 中共의 北京放送(6월 6일)이 보도한 알바니아 共產黨 機關紙 <제리 이 포푸리트>의 論說은 世界共產黨會議를 「修正主義 會議」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과 「새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란 소련 指導者에 대해 완전히 굴복하고 그들의 머슴이 되라는 理論"인데, 이것은 「現代修正主義의 各黨들」에게조차 거부 당했다고 썼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 6월 10일에 발표된 美國務省의 世界 共產黨 實態調査에 의하면 共產黨 多元化는 다음과 같은 樣相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① 소련派 : 41개黨
- ② 中共派 : 5개黨
- ③ 黨이 두 派로 分裂된 것 : 23개黨
- ④ 中立派 : 6개黨 (北傀包含)

⑤ 獨立派 : 7개党

3. 自主路線, 自由化, 西方接近

지금까지 「브레즈네프 독트린」 또는 「制限主權論」이란 自由諸國뿐만 아니라 共產圈 특히 中共圈에서도 똑같은 指稱으로 糾彈되고 있음을 보아 왔다. 그것은 理論 아닌 武力만으로 어느정도 「正當化」된 것 같지만 소련 追從党들도 깊은 懷疑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로 破綻一路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실례로 루마니아는 소련과 接境하여 부단히 그 軍事的 압력을 받고 있는 關係상 모스크바의 強요에 못이겨 1970년 7월 7일자로 새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을 체결했었다. 이에 앞서 소련은 그 軍隊가 직접 進駐해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더불어 2월에 같은 名稱의 條約을 締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소련과 루마니아간의 그 條約은 종전의 草案과는 달리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냄새가 자욱한 것이 특색이다. 즉 ① 締約國中 어느 한 나라가 攻擊을 받으면 공동히 反擊에 參加한다는 것, ② 兩國은 바르샤바 條約에 명시된 「義務」를 遵守한다고 다짐한 것이다. 前者의 規定에 따른다면 만약에 소련이 中共과 戰爭을 벌일 경우 되도록이면 中立을 지키려는 루마니아가 부득이 소련에 붙어 本意 아니게 싸워야 할 판이다. 또 後者の 경우는 소련인이 司令官인 바르샤바 同盟軍이 소위 「戰爭對備」나 「軍事練習」 등의 구실로 루마니아에 進駐하려 할 적에 이를 拒否할 論拠가 없어 질는지 모른다.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했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68년

이후 소련측의 條約締結요구에 대해 지연작전을 써왔으나 끝내 그 압력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하기야 루마니아의 第一人者 차우세스쿠는 그 條約의 運用이 어디까지나 “同等한 權利와 內政不干渉 및 各국의 獨立과 主權의 존중에 입각”할 것이라고 되풀이 強調하고 있다. 루마니아로 말하면 68년 가을 소련군을 先頭로 바르샤바 同盟軍이 체코슬로바키아에 侵入할 적에도 이에 參加하지 않았고, 간접적이거나 비난했던 나라이다. 條約은 條約이고 행동은 다르다는 東歐版 「自主路線」이 今後에도 한사코 志向될 것은 거의 틀림없으리라 관측된다.

소련 指導層의 打算으로 말하면 날로 自由化·自主路線을 追求하면서 遠心作用을 벌이려는 東歐를 끝내 소련 勢力圈에 묶어 두고 現狀維持라도 피해 보려는 데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條約化에 안간힘을 다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1968년의 체코 事態 이후 노골화 했었다.

그러나 巨視的으로 보아 自由化·自主化를 추구하는 東歐의 多元化의 경향은 필연적인 事態發展이다. 언젠가는 東歐가 西歐와 소련 사이에 끼인 「第三地帶」로 轉換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武力介入만 없었던들 1956년의 헝가리 事變에 이어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東獨등은 벌써 「第三地帶」를 형성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소련의 內部變化, 中共과 소련간의 戰爭可能性, 전반적인 東西關係變遷등 객관적 조건의 轉換이 열쇠로 될 것이다. 벌써 東歐 共產國家이면서도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그 對內外政策 決定에서 소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되어있다.

원래 東歐는 西歐와 러시아 그리고 小러시아의 3面에서 뻗어오는 勢力들의 이른바 「三叉路」에 위치한다. 그리하여 1815년까지 하더라도 東歐 전체가 그들 外部勢力에 의해 植民地化되어 있었다. 東歐의 現存하는 여러 나라들은 1815년 내지 1919년에 이르는 기간에 가깝스로 獨立한 弱小國들이다.

2次大戰前後까지만 하더라도 後進的인 東歐諸國의 「近代化」운동이란 곧 「西歐化」를 내용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西歐는 東歐를 저버린 꼴로 되어 유럽 歷史에 중대한 과오를 남겼다. 나치스 獨逸은 東歐를 소련 共產主義로부터 保護하는 대신 체코·폴란드의 民族獨立을 무참하게 짓밟았고, 한편 英國과 프랑스는 그 侵略을 効果적으로 制止하지 못했다. 그후 나치스는 東歐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및 헝가리를 이끌고 소련을 치는데 이르렀으나 자기 힘을 믿는데 오만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東西 兩面作戰을 벌인 끝에 敗亡하고 말았다. 그 「힘의 眞空」을 武力으로 메운 것이 소련이다. 東歐를 점령한 소련은 그곳 여러 나라들의 體制를 소련 模倣으로 바꾸게 했으며, 東歐 共產圈들로 하여금 소련의 勢力圈속에 순종하도록 강요해 왔다.

한편 東歐의 여러 國民은 西方側이 과거에는 나치스 獨逸, 2次大戰 후로는 소련에 대해 고식적인 尤화정책을 씀으로써 東歐가 버림 받았고 끝내 共產化되었다는 데서 소련 占領을 싫어하는 동시에 西方國家들도 不信하는 착잡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다. 소련군의 占領이 첫째 要因이지만 西方에 대한 불만도 깃들여 있어서 일단 共產化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東歐에서는 소련

으로부터 獨立하되 西方에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第一地帶意識이 뿌리 깊은 것이다.

그동안 소련식 共產主義의 適用은 東歐諸國으로 하여금 ① 모스크바에 服從하는데 따르는 民族獨立의 상실, ② 소련의 收奪과 官僚的·教條的인 計劃經濟로 말미암은 民生의 파탄과 經濟成長의 鈍化, ③ 赤色 테러 統治속의 人間性 유린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했다. 동시에 東歐는 1956년 2월, 소련 共產黨 20次大會 이후로 「反스탈린」運動이 發動되는 마당에 共產宗主國에서 조차 體制內的 모순이 드러났고 내부 變化가 싹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또 눈길을 西方에 돌려 資本主義國家가 오히려 「풍요한 社會」로 安定속에 發展하여 자유롭고 裕足한 民生을 실증했음을 부러워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東歐에서도 마찬가지로 「植民地 民族主義」의 共通的인 3大要素 즉, ① 民族獨立 ② 經濟 自立 ③ 人間性解放을 위한 民主的인 社會改革은 共產主義에 의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自主路線, 自由化, 西方接近 등을 基調로 하는 東歐의 多元化시대의 歷史的·必然的 추진으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 4. 東歐 共產圈의 「漸進的」變化

한동안 東歐의 多元化, 브레즈네프가 가장 위험시한 이 지역의 自由化運動은 필연적이면서도 산발적이고 自然發生的이라는 인상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劃期的인 改革運動過程에서 종전의 여러 가지 志向은 理論化되는데 이르렀다.

원래 共產治下 住民들은 赤色 테러와 조직의 그물때문에 거의 無氣力한 것이 常例이므로 우선 改革의 이니셔티브는 共產黨幹部가 취하게 된다. 그러자 막혔던 독이 터지는 양 學界·言論界·作家·芸術人·青年學生들을 선두로 전체 住民이 쌓이고 쌓인 울분을 폭발시키면서 改革의 에너기가 온 社會를 휩쓰는 법이다. 그리고 모순이 있으면 반드시 分裂이 뒤따르기 때문에 共產黨에서는 個人獨裁者의 退場 또는 死亡과 더불어 그 幹部陣에 새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또 아무리 獨裁社會라 할지라도 새 權力層은 國民의 念願을 度外視하고서는 효율적인 政治를 해나갈 수 없는 까닭에 輿論(소리 없는 소리)를 考慮하게 마련이다. 체코의 경우 1968년 1월 黨實權者 노보트니의 失脚이 改革의 信號로 되었다. 그는 第3次 5개년 計劃을 추진하다 2년 연장후 다시 失敗함으로써 우선 共產黨 第1書記를 물러났다. 이어서 3월에는 大統領職도 내놓게된 것이다. 獨裁者의 權威가 失墜되자, 비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데 그 重要한 題마는 黨의 官僚主義와 國民離脫, 소련에 대한 盲從, 言論과 藝術에 대한 가혹한 統制, 社會氣風의 침체, 國民의 協力意慾 상실, 教條的 計劃, 經濟의 命令主義的 추진의 파탄 등이다.

새로 共產黨 第1書記로 選任된, 두브체크 主導下에 「체코슬로바키아 共產黨行動綱領」(1968년 4월 5일자)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그나마 知識人들이 6월 27일자로 公表한 「二千語宣言」과 더불어 共產統治의 暗黒面과 모순 그리고 改革의 方向을 제시한 중요한 文獻이라고 볼만했다.

「綱領」은 요컨대 共產獨裁가 결국 招來하고만 「經濟 및 文化的 停滯」, 「自由의 抑壓, 法律의 침범, 專橫과 權力濫用」, 「命令的 官僚主義體制」, 낡아빠진 經濟管理制度」등을 규정하고자 「人道的 社會主義」의 社會的 志向을 밝힌다는 것이다.

「宣言」은 不信 風潮와 「人間關係의 歪曲 및 勞動의 기쁨의 상실」등이 共產獨裁로 招來되었다고 지적, 言論自由의 暢達 속에 改革의 길을 摸索하고자 했다. “真理는 勝利하지 않는다. 真理는 모든 것이 소멸한 後에 남는 것이다.”고 宣言했으며, 나아가서 「外國勢力이 介入할른지 모른다는 不安」에 言及 「武器를 손에 들고 政府를 擁護」할 결의를 비치기도 했다.

체코에서의 改革은 온 國民의 自發性과 創意性을 일깨우면서 점차 실천되기 시작했다. 진정한 選舉의 復活, 복수 政黨制의 소생, 集會와 結社의 自由, 言論에 대한 검열의 廢止, 旅行과 移住의 自由, 西方과의 自由去來, “個人的 政治的 信念을 國家安保機關의 活動 對象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한 「綱領」의 約束履行등은 전체 自由世界 國民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반면에 소련은 날로 不安과 초조를 더해 가던 끝에 侵略的인 武力介入準備에 拍車를 가하고 있었다. 크렘린의 不安은 한마디로 소련 本位 勢力圈 維持思想인데, 결국은 소련판 「도미노 理論」이다. 즉 체코슬로바키아라는 要衝에서 共產獨裁體制가 崩壞되는 날이면 다른 東歐 共產國家들도 崩壞될 것이고 소련 자신의 現支配體制도 뒤 흔들리게 되리라는 연쇄 작용 추측에서 미리 질겁한 不安心理였던 것이다.

어쨌든 革命도 暴力, 體制維持도 暴力이어야 한다는 데서 소련·東歐圈의 오래 가지 못할 理念的·體制的 취약성이 自體暴露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소련군을 선두로 폴란드·東獨·불가리아·헝가리 등 追從國軍隊로 편성된 바르샤바 同盟軍이 1968년 8월 전격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侵略·占領하고 만 것이다.

이 적나라한 侵略行爲는 共產國이 共產國에 侵入했다는 국면에서도 그들의 内部矛盾을 증명하는데 足하였던 것이다. 國際共產主義의 理念과 위신은 世界的으로 영원히 挽回못하도록 墜落되고 말았다. 그나마 루마니아는 바르샤바 同盟國이면서도 체코 侵入에는 同調하지 않았고, 한편 中共이 소련을 「現代修正主義 플러스 社會帝國主義」라고 규탄하는 가운데 東歐의 알바니아는 正式으로 바르샤바 同盟을 脫退했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아는 소련 侵略이 自國에 波及될까 두려워 하는 데서 西方接近을 한결 더 강화했다. 한때 흩어져가던 北大西洋同盟(NATO)의 유대는 다시 結束方向을 일깨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武力侵略을 통한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실천은 벌써 그 한계가 그어져 있다. 아시아에서는 中共에 손을 댈 수 없으며, 東歐에서는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를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 追從國軍隊라해도 본격적인 一朝有事時에 정녕 소련군의 도움이 될지는 크게 의문시된다.

바르샤바 同盟의 굴레를 면치 못하는 東歐諸國의 自主路線·自由化運動과 多元化 추세의 最大 장애물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巨視적으로 볼적에는 결코 비관할 필요를 느끼

지 않는다.

가령 헝가리는 1956년 소련의 武力介入으로 그 西方을 향한 改革運動이 진압당하기는 했으나, 오늘날 그런대로 東歐에서는 가장 統制가 적고 緩和된 나라라고 관찰된다. 체코의 경우도 소련軍 進駐下에 등장한 후사크體制는 現實的 進진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으며 「行動綱領」의 基調는 점차 이행하게 되리라고 비치고 있다. 아무리 共產獨裁라 해도 國民不在의 政治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東歐의 總體的·決定的인 多元化는 시간이라는 요인을 생각케 한다. 그 동안에 「漸進的」인 變化와 改革의 성과가 축적될 것이고 그것이 장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一國蜂起에 그치지 않는 전반적인 反蘇獨立運動으로 發展하여 다시는 各個擊破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볼 수 있다.

또 西方國家들의 현명한 東方外交는 東歐의 해방을 促進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內部變化를 전망하게 된다. 1956년의 스탈린 格下運動은 다름 아닌 소련 내부로부터 点火되어 東歐의 다른 共產國家들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소련내의 自由化 運動이 本格化되는 날이면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련인 자신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排擊하게 될 것이 내다 보인다. 또 소련과 中共, 소련과 西獨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變化는 東歐의 多元化에 항상 미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共產主義는 전반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의 매력을 상실해 가는 중

이다. 東歐의 여러 共產黨들이 날이 갈수록 「主義」보다는 國家利益과 實利를 앞세우는 自主路線에 구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事實이 바로 그 증거로 된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란 國家共產主義運動의 斜陽期 현상일 따름이다.